

청년생활

1963.1

기술 학습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오산 협동 농장 민청원들



평북도 정주군 오산 협동 농장 민청원들은 농산, 축산, 과수, 뜨락또르 운전 등 각종 기술 학습반을 조직하고 하루에 2시간씩 집중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기사 기수 검정 시험에 1과목 이상 합격하였으며 금년에는 6과목 이상 합격할 목표를 세웠다.

뜨락또르 운전수 채 규환 동무의 지도 하에 뜨락또르의 구조 작용를 배우고 있는 청년들.





《과학적인 시비 체계의 확립은 다수확의 중요 고리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오산 협동 농장 마을은 과일 꽃으로 뒤덮히게 될 것입니다.》

청년생활

1963. 1호 (160)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표지 1면,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사회주의를 더욱 빨리 건설 하자

그림, 유 충상

권두언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10 대 과업을 관철하자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과 청년들은 새해 벽두부터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긴장된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전체 근로자들과 청년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여섯 개 고지를 기본으로 하는 방대하고 어려운 인민 경제 계획이 승리적으로 완수 되였다.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20 %라는 높은 장성을 달성하였으며 례년에 볼 수 없던 엄혹한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알곡 500만 톤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

인민 경제의 전면적 기술 개건이 촉진되고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더욱 향상되였으며 앞으로 2~3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자력 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 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실증하는 것이며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을 시위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는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 및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도 체계의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는 지난 해에 달성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금년도 인민 경제의 기본 과업은 7 개년 계획의 상반기 기본 과업으로 부터 출발하여 지난 해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금년에도 농촌 경리와 경공업 발전에 계속 주력하며 중공업 부문에서는 모든 공장들을 더욱 정비 보강하면서 채취 공업 발전에 힘을 집중하며 국방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금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이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놓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힘차게 고무하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 분석하시고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10 대 과업을 제기하시였다.

10 대 과업—이는 금년도 과업 수행을 위한 전투 방향이며 방법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던 것 처럼 당이 제기한 10 대 과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투쟁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부문의 앞장에 서서 선진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선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가장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고리에 적극 진출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기술 혁신과 절약 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 부문내 청년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금년도 생산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당면한 기술 문건을 선행시키며 기계 설비들을 정비하는 등 생산 준비 사업에서 모범이 되며 계획 작성으로 부터 출발하여 생산 지도 체계, 자재 공급 체계, 후방 공급 체계를 확립하며 협동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당이 제기한 가장 긴요한 고리의 하나는 채취 공업이다.

채굴 부문내 청년들은 갱내 작업과 갱구 개발 등 가장 어려운 일들을 솔선 담당 수행할 것이며 또한 지질 탐사 부문내 청년들은 새로운 광산과 탄광 개발 대상의 탐구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기본 건설과 수산 부문에서도 가장 어렵고 긴요한 부문을 담당하여 새로운 혁신을 이르켜야 한다.

당은 금년도 농촌 경리에 계속 중요한 력량을 집중하여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킴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이였던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 사는 그러한 부유한 사회주의 농촌을 하루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청년들은 농촌을 더잘 지원하여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작업을 담당 수행하며 농촌 기술 문화 혁명 과업 수행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기술 혁신 운동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술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에 와서는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기술이 없이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특히 당은 공업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 추진시키며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술 혁명의 선두에 서야 할 사람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다.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 발전의 선봉에 서는 것은 기술 혁명 시대에 사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임무이다.

청년들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보수주의 소극성을 짓부시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여 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고안과 발명 합리화 운동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기술 혁신 운동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결합됨으로써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청년들은 자기 맡은 초소에서 걸린 문제가 있으면 우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며 기술 혁신에서 큰 것만 바라보고 작은 것은 과소 평가하는 그릇된 경향을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걸린

문제를 푸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한다.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청년들이 과학 기술 지식을 열성적으로 습득하며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의 수준에 알맞게 각종 기술 교육망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자기 맡은 사업에 능수가 되며 최단 기간내에 기수 기사의 대렬에 들어서야 한다.

청년들은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당은 금년도 10 대 과업의 하나로서 현존 설비와 시설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기계 설비들의 가동을 정상화할데 대한 과업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설비 리용률을 높임에 있어서 선결 조건은 예비 부속품을 생산에 선행시키며 계획적인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대의 주인은 그를 다루는 로동자들이다.

전체 청년들은 지난날 항일 빨찌산들이 전투 무기를 자기 몸보다 더 귀중히 애호 관리한 것처럼 설비를 사랑하며 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 속에서는 대안 전기 공장 청년들의 《붉은 기대 쟁취 운동》, 평양 탄광 기계 공장에서의 《기계 대렬 경쟁》을 비롯하여 기대를 애호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청년들은 《붉은 기대 쟁취 운동》,《기계 대렬 경쟁》에 광범히 참가하여 설비를 적극 애호하며 3 개월 이상의 예비 부속품을 선행시키며 자검 자수 사업을 강화하고 자기가 다루는 설비에 정통하며 무사고 운전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 한 건의 기대 사고도 발생시키지 말며 그의 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절약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추가적인 로력과 자금을 들이지 않고 최대한의 증산을 보장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년들은 국가 사회 재산을 적극 애호 관리하고 아껴쓰며 특히 수입 자재와 원료, 연료들을 극력 절약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은 한 개의 못, 한 오리의 실,한 알의 쌀이라도 헛되이 하지 말고 모든 재부를 나라의 민족 경제를 튼튼히 구축하는데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매우 긴장되고 복잡한 정세 하에서 수행하게 된다.

오늘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들은 죽어가는 자기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발악적 책동을 다하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오늘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적들의 침략 책동에 대한 최대의 경각성을 견지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조국의 독립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하여 전 인민이 무장하며 온 나라를 난공 불락의 요새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거리와 마을, 우리의 사랑하는 향토를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 과업 실천에서 항상 앞장서 나가야 한다.

안일과 해이 권태는 혁명에 대한 도피 사상이며 자멸을 의미한다.

전체 청년들은 자신을 공산주의 혁명 정신으로 더욱 튼튼하게 무장하고 수정주의와 부르죠아 생활 인습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하게 투쟁하며 조금도 안일하고 해이함이 없이 근면하고 검박하게 살며 일해야 한다.

전체 청년들이여!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 기술 혁명 시대에 사는 긍지와 자부심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두다 우리 당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10 대 과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자!

혁명에 참가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하 앙 천

사람들은 그 누구를 물론하고 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는 계급 사회에서는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 계급적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르며 생활 양식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레닌은 일찌기 《낡은 사회는 네가 남을 략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이 너를 략탈하느냐, 네가 남을 위하여 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이 너를 위하여 일하느냐, 네가 노예주냐, 그렇지 않으면 노예냐하는 그런 원칙에 립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어머니의 젖과 함께 노예주냐,노예냐 또는 소 소유자, 소 사무원,소 관리, 인테리냐—한 마디로 말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일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하는 그러한 심리 관습, 관념을 받아 드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다.

레닌의 이 말씀은 바로 부르죠아 사회의 약육 강식의 승냥이 법칙을 지적한 것이다.

이 법칙은 부르죠아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면 심화될 수록, 대 독점 재벌들의 수중에 생산 수단이 집중되여 그들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 수록 더욱 란폭하게 작용한다.

미 제국주의의 력사가 바로 그렇다. 미 제국주의는 가장 반동적이며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제국주의이다. 1억 8천 3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자연 부원과 생산 수단의 대다수는 모르간과 록펠러를 비롯한 8 대 재벌의 수중에 집중되여 있으며 1천 5백만의 흑인들과 절대 다수의 로동자 농민들의 처지는 사실상 노예의 처지와 별 다름이 없다.

한 줌도 못되는 독점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된 수 천억의 딸라는 일찌기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수 천만의 사망자들과 불구자들이 흘린 피 바다로 이루어진 것이다. 딸라를 위해 이 흡혈귀들은 조상 때부터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지어는 그들의 코를 꿰여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였다. 그때로부터 근 몇 백년이 지난 오늘 그들의 야만성은 100배나 더 악랄해졌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전쟁을 도발한 1950년 하반년만 하여도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240억 딸라의 리윤을 얻었는데 전쟁이 있기 전인 그해 상반년에 비하여 거이 2배나 증가된 것이다. 미국 억만 장자들의 배를 불리우는 딸라 속에는 무참히 짓 밟히고 빼앗기고 학살된 조선 사람들의 피가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하여 치부한 돈으로 고대 광실을 지어 놓고 부화 방탕한 생활을 한다.

이것이 바로 부르죠아지들이 추구하는 소위 《행복》이다.

부르죠아지들의 소위 《행복》이란 사기와 범죄로 가득찬 극단의 개인 향락주의이다. 여기서는 어느 한 사람의 리익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되며 개인의 리익은 반드시 사회적 손해로 된다.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리익을 침해하고 성공을 모해해야 한다. 례컨대 부르죠아 사회에서 의사는 되도록 사회에 질병이 많기를 원하며 건축가는 되도록 화재가 많기를 원하고 변호사는 되도록 분쟁이 많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자기에게 《행복》이 있다.

남을 착취 억압하고 남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누리는 부르죠아지의 향락을 과연 행복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찬 추악한 생활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략탈하는 범죄적 방법으로 누리는 향락 생활은 부르죠아지들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행복스러운 생활로 되지는 못한다. 그들에게는 비대할 수록 더 많은 반대자가 생기게 되며 따라서 대중들이 언제 자기 목을 달아 맬른지 몰라서 무서워하고 자기 집의 울타리를 높이며 문 지키는 개의 신세를 지며 자기의 그림자마저 경계하면서 불안스럽게 살아 간다.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 휩쌓여서 아무리 고량진미에 호의 호식한들 그것을 어찌 행복한 생활이라할 수 있겠는가!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부르죠아지들의 세계에는 절대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데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자기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고상한 리상을 실현해 나가는 투쟁 속에서 찾아야 한다.

과거 봉건 사회에서도 그 당시 사회 제도의 모순을 발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반대하며 사회의 온갖 죄악을 폭로하며 민족적 정의감과 인도주의 립장에서 투쟁한 선구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비록 불우하고 난관이 첩첩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자기의 고매한 리상을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누구를 대하나 아무 부끄러움 없이 희망에 찬 생활을 하였었다. 이들은 심지어 나라 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개인의 부귀 공명을 헌 신짝 같이 버리고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쳤다. 이런 사람들의 정신 세계와 행복관은 돈 주머니를 그러 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는 산 송장과 같은 인간들과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

하물며 맑스-레닌주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로동 계급의 선진 투사들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랴!

진정한 행복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소유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 만이 느낄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자연과 사회의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피압박, 피 착취 대중의 혁명에 관한 과학이며, 모든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승리에 관한 과학이며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이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믿고 자기 계급과 자기 민족, 그리고 전세계의 착취 받고 압박 받는 근로자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근로 인민의 지상 락원—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위업에 자기의 모든 힘과 생명까지 바쳐 투쟁하는 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삼는다.

혁명에 참가하는 것 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　　　*

조선 청년들은 본래부터 천성이 맑고 명랑하고 례절이 밝고 체구가 튼튼하며 의지력이 강하고 기백이 왕성하다. 특히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은 혁명성이 강한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과 봉건 량반 통치를 반대하는 혁명적 봉기에 항상 앞장 섰다. 그들은 일제 통치를 반대하는 3.1운동, 6.10 만세 운동, 광주 학생 운동 등에서 자기들의 혁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조선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령도에서 자기들의 앞길을 찾았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리상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행복을 찾았다.

유서 깊은 백두산 기슭에서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최초의 혁명적 무장 대오, 항일 유격대가 조직될 때 그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20세를 전후한 청년들이였다.

그들의 념원은 단 하나,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고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 땅에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하자는 것이였다.

오직 이 한 뜻을 위해 그들은 잔악한 원쑤의 비'발치는 탄 우도, 철창도, 고문도, 단두대도 두려워 하지 않고 15년 동안이나 모든 곤난을 극복하면서 싸워 이겼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의 어려운 시기에 젊은 빨찌산 대원들에게 《우리는 싸움도 항상 명활성 있게 잘 해야 하지만 어데서나 인민을 존중히 하고 인민의 리익을 자기의 가장 귀중한 생명처럼 여기며 그 어떤 간난 신고도 참고 견딜줄 알면서 인민과 함께 즐기고 인민과 함께 나아가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진실한 행복과 긍지와 희망이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항일 빨찌산의 젊은 투사들은 수령의 가르침에 항상 충실했으며 청춘의 고귀한 생명을 조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들인 리 제순, 권 영벽, 마 동희, 황 정해, 박 길송, 리 순희…등 수 많은 공산주의 투사들에게는 《자기》라는 특별한 개념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와 대중, 자기와 사회를 조금도 분리시키지 않았다. 대중의 리익, 사회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데서나 어떤 간난 신고도 용감히 극복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수 있는 각오로 충만되여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혁명을 위해 장기간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원쑤의 모진 고문과 단두대에 나서는 것도 전혀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결코 실망과 비관을 몰랐으며 항상 락천적이였다. 때문에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태연하게 세상을 떠났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젊은 항일 빨찌산 지대장 박 길송 동지는 사형장에서 이렇게 소리 높이 웨치며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공산주의—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입니다. 공산주의—이것은 바로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내는 요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습

니다.》

공산주의 투사들의 이 숭고한 혁명 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심장 속에 힘차게 맥박치고 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1,211 고지의 영웅적 전투에서 19세의 어린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아군의 돌격로를 개척한 리 수복 영웅의 다음과 같은 웨침 즉 《나는 해방된 조선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래일의 찬란한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 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이것이 바로 항일 유격대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받아 혁명의 진리를 체득한 로동당 시대의 우리 나라 청년들의 확고한 신념이며 고매한 정신이다.

조선 청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항일 유격대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혁명 선렬들이 들었던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　　　*

오늘 우리 로동당 시대는 영광스러운 혁명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시킨 항일의 전통을 계승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시키며 낡고 부패한 모든 것을 쓸어 버리고 누구나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혁명의 시대이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로동당 시대에 와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당은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 주었으며 나라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고 배우며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선진적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청년들은 압박과 착취를 모르고 의식주와 직업과 교육에 대하여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게 되였으며 그들에게는 오직 행복한 생활과 광명한 미래가 약속되여 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누구나 일할 수 있고 무료로 배울 수 있고 무상 치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유롭고 희망에 가득찬 생활을 누리는 사회—이것이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 청년들이 그 어느 시대에 이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고 희망찬 생활을 누려 보았던가! 이것은 조국의 반만년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위대한 행복이다.

이러한 행복은 오직 항일 투사들의 피어린 투쟁이 있었으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들의 영웅적 투쟁이 있었으므로 하여 번영과 혁신으로 충만된 오늘의 력사가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좋지만 우리 나라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 화려하다.

바야흐로 수행되고 있는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이 이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가 오늘 땀을 흘려서 창조하고 건설하는 것은 다 청년들의 장래 행복을 위한 것이며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우리 나라 청년들에게 무비의 혁명성과 영웅성, 애국적 헌신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혁명 선렬들의 간고한 투쟁과 고귀한 피의 대'가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있으며 그들의 위업을 계승하여 래일의 보다 큰 행복을 자신들의 두 손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책임감에 충만되여 있다.

우리 나라 청년들에게 있어서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보다 부유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위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 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항상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초소에 적극 진출해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다.

당과 수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된 청년들은 천리마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도처에서 집단적 혁신을 이르키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구호가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부르죠아 사상 잔재인 개인 리기주의를 뿌리채 뽑아 버리고 모두 혁명적 동지애, 인민에 대한 복무성,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로 무장하여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을 끝없는 자랑과 행복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전체 인민의 리익을 떠나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리익을 떠나서 나 혼자 또는 우리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과 전체 간의 리해 관계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 나라 청년들의 신조로 되고 있다.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항상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우리 인민을 확신성 있게 인도하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는 현시기 국제 국내적으로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해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우리의 온 강토를 난공 불락의 요새로, 진지로 전변시키며 우리의 거리와 마을 우리의 사랑하는 향토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욱 성과적으로 건설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우리 청년들의 모든 생활과 투쟁의 지침이다. 청년들은 더욱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당과 수령이 부르는 혁명의 길을 따라 확고하게 나가야 한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적에 대한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며 온갖 해이성과 권태증을 반대하며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르죠아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실 밑에 사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외곡하여 청년들의 머리를 혼돈시키려 하며 청년들의 행복을 도모한다는 구실 밑에 사실은 청년들의 혁명성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며 세계 인류의 공동의 원쑤인 미 제국주의와 모든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청년 학생들의 혁명 의식을 좀 먹는 현대 수정주의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제 4 차 당 대회가 제시한 위대하고 영예로운 혁명 과업 실천의 길로 힘차게 나가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이 인도하는 혁명의 길로 전진하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영예는 없다.

혁명에 참가하는 것 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공청 일'군 김 금철 동지를 회상하며

림춘국

…공청은 광범한 청년 대중 속에서도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청년들로 조직되였다. 공청원들은 항상 당의 령도 밑에 자신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자기 조국을 일제의 기반에서 광복시키며 압박과 착취, 횡포와 유린이 없는 참다운 자유와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려는 열렬한 혁명 투사들이며 청년 전위 부대이다.

새 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년 전위 부대의 한 성원으로 된 공청원들은 항상 자기의 높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굴의 투사가 되며 공산당의 믿음직한 후비대가 되여야 한다…

지난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김 일성 동지께서는 공청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공청원들과 청년 공작원들의 행동의 지침으로 되여 있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열렬한 혁명 전사로 교양 육성된 수 많은 공청원들과 공청 일'군들은 빨찌산 대오에서, 지하에서, 원쑤들의 감옥에서 공산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항상 용감했으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조국의 광복과 공산주의 위업에 바쳐 백절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아직 나의 기억에 생생한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바친 김 금철 동지의 불굴의 투쟁 모습이다.

김 금철 동지는 지하 비밀 공작의 불리한 조건과 중첩되는 난관 속에서도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항상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혁명의 리익을 위한 일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 없이 바치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운 김 금철 동지는 일상 생활에서 소박하고 청렴하였으며 혁명 동지를 육친의 정으로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는 혁명의 리익에 위반되는 사소한 경향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함이 없이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는 어떤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당황함이 없이 대중을 혁명 위업에로 능숙하게 조직 동원할줄 아는 유능한 공청 일'군이였다.

김 금철 동지가 연길현 8구 작은 모록구 공청 지부 서기로 공작할 때 있은 일이다. 이때 동만 지대에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추수 폭동은 이 곳에도 파급되였다. 공청 지부 앞에는 당의 령도 밑에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옳게 조직 동원하여 그들을 추수 투쟁에로 궐기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섰다.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하여도 작은 모록구 공청 지부에는 불과 4~5 명의 공청원들 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지대는 다른 곳 보다 유교적 봉건 세력이 우세하고 아직은 사회주의 사상 운동이 딴 부락 보다 뒤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광범한 농민 대중 특히는 농민 청년들을 조직 동원하여 추수 투쟁에로 궐기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김 금철 동지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도 능숙한 군중 공작 방법으로 공청원들의 대렬을 확대 강화하였고 청년 군중을 반일 혁명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이웃 부락인 큰 모록구에서 이미 추수 투쟁이 시작되였다는 소식을 듣게된 김 금철 동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였다.

금철 동지는 곧 공청 지부 회의를 소집하였다.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투쟁 방침들이 토의되였다.

추수 폭동을 승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농촌 혁명 력량의 기본 동력인 빈, 고농민 청년들을 단 시일 내에 대중적 조직인 농민 협회에 묶어 세워야 했다. 공청원들에게 세밀한 분공이 조직되였다. 가장 핵심적인 청년 수 10 명을 단시일 내에 쟁취하며 지방 유지들과 로장층 중에서도 신망이 있는 자들까지 포섭하기로 하였다.

김 금철 동지는 구 명복 동지를 비롯한 공청원들과 함께 청년들을 포섭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겸손하고 소박한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한 김 금철 동지는 군중 공작에서도 남다른 솜씨로 대중을 혁명 조직에 묶어 세웠는데 그는 능란한 이야기'군이기도 하였다. 금철 동지는 우리 나라는 물론 동서 고금의 수 많은 옛말을 다 알고 있었다. 그의 구스므러한 옛말이 시작되게 되면 의례히 군중들이 모여들군 하였는데 옛말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계급 의식을 높여 주는 선전으로 끝을 맺군 하였다.

이렇게 남녀 로소 할것 없이 그의 이야기에 끌려 들어간 군중들 속에서는 날로 계급 의식이 제고되였고 혁명의 씨앗이 짝트기 시작하였다. 그의 꾸준한 호별 방문은 계속되였다. 그러나 모든 군중이 다 순조롭게 혁명 조직에로 인입된 것은 아니였다.

어떤 집에는 10 여 차례씩 찾아 갔으나 좀체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로 보아 응당 농민 협회에 망라되여 일제와 지주놈들의 억압 착취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있었으나 일제의 야만적 백색 테로와 지주놈들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금철 동지가 아니였다. 그는 이렇게 동요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더 자주 발'길을 돌려 인내성 있게 이깨워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빈, 고농민 청년들을 중심으로 수 10 명을 농민 협회에 묶어 세우게 되였다. 대중 전취를 위한 사업은 이에서 끝이지 않았다.

금철 동지는 실지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 교양 훈련시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 지대의 주민 구성이 비교적 민족주의 경향이 농후한 실정을 타산하여 그들을 일제를 증오하는 사상 교양과 함께 우선 반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기로 하였다.

때마침 작은 모록구 일대에서는 일제의 사촉하에 고용 간첩 김 택현과 악질 지주 석 화성 형제놈이 주동이 되여 《구국단》 조직을 확대하려고 책동하고 있었다.

당시 놈들의 《구국단》이라는 것은 날로 확대되여 가는 혁명 력량을 와해하려는 음흉한 목적 밑에 일제의 사축을 받아 조직된 가짜 민족주의 단체였다. 김 택현이란 놈은 비교적 혁명 력량이 우세한 지대에 나타나서는 《구국단》으로 자칭하고 《조선 독립 연조금》을 걷어 내였고 아직 봉건 세력이 우세한 농촌 지대에 나타나서는 《공산주의자》로 가장하여 인민들에게서 금품을 강탈하여 갔다.

이와 같이 놈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모해 중상함으로써 그들과 인민들과의 리간을 조성시키려 하였다.

일제와 그의 주구들의 간악한 흉책을 간파

한 김 금철 동지는 놈들의 죄악상을 폭로 규탄할 방도를 궁리하던 끝에 군중들을 모여 놓고 이들의 죄상을 백일 하에 단죄하기로 하였다. 금철 동지는 공청 핵심들과 이 문제를 토의하고 청년 열성자들에게 분공을 주어 부락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후 지주 석 화성 형제 놈을 붙잡아 왔다.

처음엔 좀체로 제놈들의 정체를 내 놓으려 하지 않았다. 놈들의 간교한 술책에 격분한 군중들 속에서는 주구놈들을 규탄하는 웨침 소리와 함께 돌무지들이 날아 들었다. 이에 질겁한 놈들은 목숨만을 살려 달라고 애걸하면서 일제의 사촉을 받아 《구국단》을 조직하려든 간계를 실토하게 되였다.

그러나 간악한 놈들은 이처럼 급한 사경에서도 소작료만은 낮출 수 없다고 지껄여 댔다. 격노한 군중들은 이 말을 듣자 놈들을 반주검이 되도록 두드려 놓았다. 이때에야 비로소 놈들은 하는 수 없이 소작료를 20%만 받겠다고 승인하였다.

처음으로 군중들을 조직한 대중적인 투쟁에서 승리한 김 금철 동지는 앙양된 대중들의 기세를 늦춤이 없이 곧 새로운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투쟁은 단순한 경제 투쟁으로부터 일제와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는 정치 투쟁에로 발전되였다.

그 이튿날 큰 모록구와 봉림동, 룡암동 등지에서 넘어온 수천 명의 군중과 합세한 이곳 공청원들은 연길 시가를 향하여 대중적인 시위 투쟁을 전개하여 끝내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간고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백절 불굴의 혁명 투사로 장성한 김 금철 동지는 또한 용감성과 대담성으로써 항상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1932년 겨울 어느 날 밤이였다. 룡정에 있는 놈들의 비행장 넓은 뜰 안에 일제와 그의 주구들의 죄행을 폭로 규탄하는 수 많은 삐라들이 바람에 날아들었다. 동녘이 훤히 밝아서야 비행장 구내에서 삐라를 발견한 놈들은 눈이 휘둥그래 져서 소동을 일으켰다. 비행장 주변은 물론 룡정 시가지를 발칵 뒤집다 싶이 수색하였으나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했다. 헛물을 켜고 돌아온 놈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았대야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이 《비상 사고》의 진상을 어떻게 밝혀낼지 몰라 혈안이 되여 돌아 치고 있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놈들은 비행장 부근에 날짐승도 날아 들기 힘들 지경으로 삼엄한 경계망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거미줄처럼 늘어선 보초선을 뚫고 비행장 부근에 접근해 들어 간다는 것은 보통 생각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노릇이였다. 외부에서는 도저히 들어 올 수 없다고 단정한 놈들은 틀림없이 내부에서 일어난 작간이라고 생각하였다.

놈들은 저희들끼리 의심하던 끝에 수많은 사람들을 강금해 놓고 서로 물어 뜯는 웃지 못할 《희극》을 벌려 놓았으나 끝내 단서를 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소동》의 조직자는 다름아닌 김 금철 동지를 비롯한 공청원들이였던 것이다. 비행장 부근의 삼엄한 경계망을 정찰한



금철 동지는 놈들을 단단히 골려줄 작전을 미리 짰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이들은 이날 밤 때마침 불어대는 서풍을 리용하여 대담하게 행동을 개시하였다. 쥐도 새도 모르게 비행장 부근에 접근한 금철 동지와 두명의 공청원들은 삐라 뭉치를 비행장 안쪽으로 날려 보내고 빠져 나왔던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1933년 가을 일제 놈들은 토성 구축에 수 많은 농민들을 강제로 내몰고 있었다.

이때 김 금철 동지는 연길현 반일 인민 유격대에서 련대 청년 간사로 공작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금철 동지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적들에게 불의에 타격을 줌으로써 인민들에게 투쟁 기세도 북돋아 주며 무장도 보충해 오자는 것을 제기하였다. 그의 대담한 제기는 곧 수락되여 드디어 전투 임무는 내렸다.

이튿날 아침 허줄한 농민 옷차림을 한 끌끌한 청년들이 부역에 끌리여 가는 대렬에 끼여 들었다. 이들은 금철 동지를 비롯한 10 여 명의 공청원들이였다.

이윽하여 대렬은 토성 구축 현장에 도착하였다. 십장인듯한 놈이 눈을 부라리며 농민들을 아래 우로 훑어 보았다.

그러나 제아무리 혈안이 되여 날뛰는 놈들의 눈알일망정 이미 농민들 속에 휩쓸려 들어간 유격대원들을 가려내지는 못하였다. 아슬아슬한 고비를 무사히 넘긴 공청원들은 미리 세워진 전투 계획대로 놈들의 동태를 살펴보기 쉬운 곳으로 흩어져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정찰 자료들이 종합되였다. 7~8명에 불과한 놈들이 자위단 사무실에 있을 뿐이였다. 대낮에 유격대가 습격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히히더거리며 나뒹굴고 있었다.

때를 놓쳐서는 안될 좋은 기회였다. 공청원들은 각기 자기 전투 위치에 배치되였다.

놈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불의에 습격해 들어간 공청원들은 순식간에 놈들을 처단 해치우고 10 여정의 보병총을 로획해 가지고 유유히 돌아왔다.

김 금철 동지는 또한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한 목숨도 서슴 없이 바쳐 싸우는 고결한 혁명 정신의 소유자였다.

1932년 말, 놈들은 유격 근거지 토벌에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놈들은 드디어 연집강 상류에 자리잡고 있던 석인구 큰 열빈개 골안에도 기여 들었다. 불의에 당한 일이여서 근거지내 인민들을 미리 피신시킬 수 없었다. 당황한 수 10 명의 인민들은 서쪽 골안으로 빠져 산으로 기여 오르고 있었다. 미친 개떼 모양 달려드는 놈들은 기를 쓰고 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더 지체할 수 없는 위급한 순간이였다. 이런 정황을 목격한 김 금철 동지는 순간 어찌할바를 몰랐다. 원수들에 대한 증오로 불타는 그의 두 손에는 다만 한 자루의 화승총 (렵총)만이 쥐여져 있었던 것이다.

(이 총으로 저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는 없지 않은가? … 아니다 내 손에는 비록 화승총일 망정 한 자루의 총이 쥐여져 있다. 그렇다!. 맨 주먹으로라도 인민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야 한다. 적들을 나에게로 유도하자.)

이렇게 결심을 내린 금철 동지는 세 명의 공청원들과 함께 인민들이 기여오르는 반대편 골짜기로 뛰여가며 적들에게 복수의 총탄을 퍼부었다. 이에 당황한 적들의 화력은 이들쪽으로 쏠리게 되였다. 예견했던 대로 추격하던 적들을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

금철 동지는 공청원들과 함께 적들이 게바라 오르기 힘든 골안으로 유인해가지고는 재빠르게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뒤따르는 놈들은 헛물만 켜고 되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는 사이에 막다른 골안에서 헤매던 수 10 명의 인민들은 안전 지대로 빠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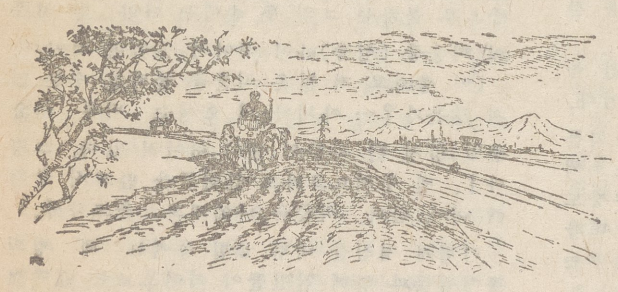
지하 비밀 공작의 어려운 투쟁에서 유능한 공청 일'군으로 성장한 김 금철 동지는 연길현 8구 공청 조직 부장을 거쳐 1933년 봄부터는 직접 손에 무기를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연길현 반일 인민 유격대 중대 청년 간사를 거쳐 련대 청년 간사로서 가렬한 무장 투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공청원들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워 온 김 금철 동지는 1933년에 공산당원의 영예를 지녔다.

그후 김 금철 동지는 1934년 4월 5일 연길현 천보산 반동 무장 자위단을 습격하는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쳤다.

자기의 고귀한 생애를 조국과 당과 인민을 위하여 바친 김 금철 동지의 불멸의 투쟁 업적과 그의 숭고한 혁명 정신은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맥맥히 흐르고 있다.

오산'벌의 붉은 초병



평북도 정주군 오산 협동 농장에서 일하는 채 규환 동무는 일편 단심 당의 뜻을 받들고 온갖 난관을 물리치면서 뜨락또르 운전 기술을 배워 훌륭한 농촌 기계화의 선구자가 되였다

《꽃은 계속 피여야 한다.》

뜨락또르 운전수 면허장을 받던 날 채 규환 동무의 가슴은 몹씨도 부풀어 올랐다.

그의 눈앞엔 지난날의 가지가지 사연들이 떠올랐다.

규환 동무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가렬한 전투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오래'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 하자 당에서는 그를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라고 여기 오산 협동 농장에 보내 주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열어 놓은 창문 밖으로 한 눈에 바라 보이는 드넓은 농장'벌에서 마을 사람들이며 청년들이 버쩍 들끓으며 일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안달아 났다.

《어찌 내가 이만한 병으로 아래 구석에만 누워 있을 수 있으랴! 수상님은 꽃은 계속 피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나는 결코 대렬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규환이는 다음 날부터 지팽이에 의지하여 민청 위원장이며 관리 위원회를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열두번 간청 끝에 그의 소원은 끝내나 허락되여 그는 마을의 양수장이며 정미기를 보는 쉬운 일을 하게 되였다.

그러나 규환이는 이런 일에는 만족할 수 없었다.

언제나 자기의 생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재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내며 일을 찾아 하게 되는 법이다.

어느 날 그가 고개'마루에 앉아 봄갈이하는 뜨락또르의 모습을 바라 보고 있을때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던 뒤'집 할아버지도 그의 곁에 와 앉았다.

《…규환이 참 좋은 세상이야…기계로 농사하게 되니 농사 일이 얼마나 헐하게 되였나… 자네 내 손을 좀 보게나…참 기막힌 세월도 보냈지…》

솔뚜껑 같은 할아버지의 손을 보는 순간 규환이의 가슴은 찌르르 하였다. 그는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는 일, 바로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도 뜨락또르 운전 기술을 배워 농촌 기술 혁명의 앞장에 서야 한다…》

그는 자기의 지난 날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더욱 불타 올랐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떠 오르는 각가지 생각들……

네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조그마한 초가집마저 홍수에 밀려 가던 일, 발 한뙈기 없이 알몸이 된 아버지가 지주놈의 머슴으로 일평생 고역에 시달리던 일, 아버지가 병들자 지주놈이 사정 없이 내 쫓던 일, 그러니 그들의 운명이 어찌 되였으랴……

어느 날 휘영청 달 밝은 밤이 였었다. 그날 밤도 그들 부자는 류랑 걸식하며 이 동리 저 동리로 돌아 다니다가 어느 풀밭 우에서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아버지의 신음 소리에 눈을 떠 보니 아버지의 열은 더 했었다. 샐녘이 되면서 아버지의 병은 몹씨 위급하였다. 그러나 나어린 규환이로서는 어쩌는 수 없었다. …이 날 밤 눅기찬 여름의 호남'벌 초원 우에서 아버지는 끝내나 세상을 원망하면서 영영 떠나고 말았다. 규환이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렸다.

《내가 뜨락또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도 설음 많고 못살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 시키는 길이다. 뼈에 사무치도록 쓰라린 지난 날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뜨락또르 기술을 배워야 한다. …》

다음 날부터 뜨락또르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한층 불붙듯 하였다.

어느 날 그는 정미소에 가다가 밭'머리에 서 있는 뜨락또르에 바싹 마음이 끌려 올라 앉아 운전대를 틀어 쥐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있었다. 그바람에 그는 운전수가 가까이 오는것도 몰랐다. 운전수는 성을 내면서 말했다.

《동무! 내려 오, 남의 차에 함부로 올라 앉는 법이 어데 있소. 그러다가 고장이라도 생기면 어쩌자구 그러오…》

규환이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허허 친구 너무 나삐 생각마오, 뜨락또르 운전을 바싹 배우고 싶어 그러오…》

그러자 운전수는 다소 부드러워 지면서 말하였다.

《그런데 동무는 보매 몸이 완전하지 못한것 같은데 패 뜨락또르를 몰아 내겠소? …》

《그렇소, 동무 난 영예군인이요. 그러나 그런 념려말구 어서 배워나 주오. 수상 동지는 우리 영예 군인들에게 꽃은 계속 피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소…》

이 일이 있은 후 몹씨 감탄한 그 운전수는 규환이에게 뜨락또르에 대한 기술 서적까지 가져다 주었다.

그는 학습에 달라 붙었다. 몇달 동안 《뜨락또르 구조 및 기술 정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책들을 학습하였으나 책만으로써는 리해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실물을 놓고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뜨락또르 구조를 학습할 때였다. 발전기의 원리를 암만해도 잘 리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리저리 궁리하던 끝에 무릎을 탁 쳤다.

《그렇지…농기계 작업소에 찾아 가자! 거기에야 기술자도 있을게 아닌가…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

마을에서 군까지는 30 리'길이다. 그러나 배움의 길에야 어찌 탄탄대로만 있겠는가?

규환이는 그 30 리'길을 래왕하면서 공부하리라 마음 먹었다.

다음날 저녁 8시, 신의주로 달리는 렬차 안에는 《뜨락또르 구조 및 기술 정비》라고 쓴 책을 쥔 한 청년이 있었다. 규환이였다. 그는 정주에서 내리자 마자 농기계 작업소로 찾아 갔다.

그리고는 지배인을 만나 간청하였다.

《지배인 동무! 오산에서 왔습니다. 또락또르 기술을 배우려고 찾아 왔습니다. …좀 방조를 주십시요…》

《뭐 오산에서? …》

못내 감탄한 지배인은 쾌히 승락하고 그를 수리 직장 기술자들에게 붙여 주었다.

수리 직장이야말로 뜨락또르의 복잡한 구조를 짧은 시일내에 빨리 배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배움터였다.

수리 직장에서의 실습을 통하여 일련의 《뜨락또르 구조및 기술 정비》에 대한 지식을 배운 그는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는 뜨락또르 운전수들을 따라 다니면서 실제 운전법을 배웠다. 그는 낮이고 밤이고 뜨락또르에 붙어서 떨어질줄 몰랐다. 청룡'벌에 따라 나간 날 밤이였다. 그는 이날 밤 함께 일 나간 김 동무에게 사정하였다.

《김 동무! 오늘 밤엔 내가 운전대를 좀 잡아 봅시다. …》

《패 자신 있겠소? 그러다가 혹시 발이라도 잘 못 갈면…》

김 동무는 의아해 하였다.

《건 념려마오. 그렇게 주저 하다간 일생을 가도 기술을 못 배우지요…》

규환이는 지그시 운전대를 틀어 잡았다. 그가 시동을 걸자 뜨락또르는 거물과도 같이 와

르릉 와르릉 내 달렸다. 옆에서는 김 동무가 따라 다니며 손을 흔들면서 소리 질렀다.

《전진! 후퇴! 좌향! 우향…》

규환이는 그 모든 동작을 능숙하게 해 제꼈다. 이날 밤의 감격을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규환이는 검은 땅을 파도처럼 일쿠며 달리는 뜨락또르 우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수상 동지! 저는 꽃은 계속 피여야 한다는 당신의 교시를 명심하고 끝내 이 뜨락또르를 몰게 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원쑤들을 조국 땅에서 몰아 내고 통일되는 날 저의 아버지가 깊은 원한을 안고 돌아가신 호남'벌도 이 무쇠 철마로 갈아 번지겠습니다.…》

실로 규환 동무가 받은 한장의 면허장에는 이악하게 배운 그의 불굴의 의지와 피나는 노력이 스며 있었다.

《우리 농장 운전수》

운전수가 된 규환 동무는 첫 출발부터 모든 부문에서 모범이 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가을갈이가 시작된 어느 날 해질 무렵이였다.

논밭을 정리하던 일부 농민들이 불평조로 이렇게 말하고들 있었다.

《…아니 기계를 가지고도 밭을 이렇게 갈다니…공수는 공수대로 받고…원…》

이 말은 그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사실 살펴 보니 땅이 굳은 곳은 잘 갈지 않았으며 어떤 논밭 모서리는 갈수가 있음에도 갈지 않았다. 이런 일들은 종전에도 여러번 있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소대장에게 직접 이일을 제기까지 하였다.

소대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였다. 규환 동무가 일어 섰다. 그의 목소리는 쟁쟁하였다.

《동무들…우리는 여기에 노력 공수를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다.…우리는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농촌 기계화의 위력을 보여주며 농민들을 교양하여 농사를 더 잘 짓도록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생각들해 보십시요…우리가 기술을 왜 배웠습니까… 이 땅에는 우리 부모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습니다.…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않됩니다. …우리가 배운 기술, 이것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술이 되여야 합니다. 그런데 농장 일을 삯일 하듯 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규환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운전수들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합숙에 돌아 와 자리에 누운 김 동무와 림 동무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들은 규환 동무 말에서 자기들도 량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다.

(림 동무! 밭에 나가 보자구…》 두 동무는 삽을 들고 자기가 간 논밭으로 나갔다. 밭머리에 까지 갔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다.

《뭘가?……》

《그 누구요?…》

그것은 규환 동무였다. 그 역시 회의를 끝낸 후 남몰래 삽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정말로 규환이의 열성은 이만 저만이 아니였다. 그는 밭을 잘 갈자면 그 밭의 토질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농장의 포전들을 필지별 토지 조사까지 철저히 하였다. 그리고는 거기에 마추어 보섭날을 조절한 후 밭을 갈군 하였다. 나중에는 이 모범이 다른 운전수들에게도 알려져 보급되였다. 그야말로 규환 동무는 무슨 일에서든지 주인답게 일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작업 반장 아바이가 소대장을 찾아 왔다. 아바이는 이렇게 말했다.

《소대장 동무! 우리 포전에 두엄을 운반한 일이 없는지요. 누가 운반했는지 또 밭에 두엄 더미가 생겼습니다.…혹시 운전수 동무들이…》

뜻밖의 물음에 소대장은 놀랐다. 자기는 두엄을 운반하라는 작업 지시를 준일이 없었던 것이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작업 반장 아바이는 그것을 물어보기 위하여 다시 관리 위원회로 찾아갔다.

관리 위원장 동무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런 사람이 있소. 그것은 바로 규환 동무요. 그는 며칠전부터 매일 찾아와 작업반에 나가는 짐이 없는가? 밭에 나를 두엄은 어디 있는가?고 물어 보았소…》

이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규환 동무라는 것을 알자 소대장이 그를 칭찬하였다. 규환 동무는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큰 일이라구요…그저 공차를 몰고 다니지 않기 위해 그랬지요…》

사실 규환이는 공차를 운영하지 않기 위해



작업하려 갈 때면 꼭 관리 위원회에 들려 물어 보았다. 그리하여 나갈때엔 작업반에 보내는 짐을 싣고 없으면 두엄을 실었다. 작업을 끝내고 돌아올 때도 역시 이렇게 하였다. 그는 한번도 공차를 몰고 다닌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작업반에서는 관리 위원회 창고에 있는 건설용 자재를 운반하려고 로력 조직을 하였다. 몇 사람이 소달구지를 끌고 떠나려는 때였다. 뜨락또르 엔징 소리가 나더니 규환이가 그 자재를 싣고 왔다.

《자 어서 내리우시요. …문짝들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규환이는 자기가 먼저 부리우기 시작하였다. 농장원들은 저마다 달려 들어 부리웠다.

《…우리 농장 운전수가 정말 다르구만!》

농장원들은 감탄의 말을 금치못하였다.

사람들은 어느듯 그를 《우리 농장 운전수》라 부르게 되였던 것이다.

《우리 농장 운전수》— 이 말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재일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은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우리 농장 운전수》인 규환 동무는 소대장으로 임명되였다.

그는 당이 준 이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것을 바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더우기 평남도 내 당 및 농촌경리 일'군 협의회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는 그의 가슴에 새롭게 타번지는 불씨를 안겨 주었다. 규환 동무는 농촌 청년들에게 뜨락또르 운전 기술을 배워주기 위하여 15 명의 마을 청년들로서 뜨락또르 기술 학습반을 조직하였다. 그는 한주일에 두번씩 그들에게 뜨락또르 운전법을 꾸준히 배워 주었다. 이들 15 명의 청년들은 금년말에 뜨락또르 운전수 자격을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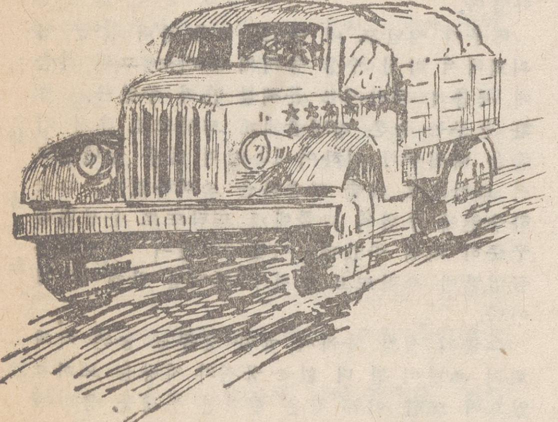
그들의 성장 속에서 규환 동무는 농촌 기계화의 초병이 된 더 없는 긍지와 자랑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그는 보다 풍만한 래일의 아름다운 농촌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본사 기자 리 광 수

열개의 붉은 별

평양시 제 5 화물 자동차 사업소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장인 고 인식 영웅은 10년간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 건의 사고도 없이 50 여 만 키로를 주파하였다. 이것은 실로 지구의 열두 바퀴 반에 해당하는 놀라운 거리다.

과연 그와 같은 기적을 낳게한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평양시 제 5 화물 자동차 사업소로 찾아 갔을 때 고 인식 영웅은 작업 현장에 나가 있었다. 우리를 반가이 맞이한 사업소 기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마 곧 돌아 올겝니다. 그새 우선 제가 그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정전된 이듬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사업소 차량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얼굴이 너부죽하고 키가 후리후리한 한 젊은 운전수가 사업소에 배치되여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였어요.

〈이 사업소에는 《마당차》가 많다지요. 나에게 그걸 한대 맡겨 주시요.〉

〈뭐 《마당차》를?〉

그 자리에 앉았던 지배인 동무가 굵은 눈섭을 치뜨며 되물었습니다. 하기야 그 《마당차》란 전쟁에서 몹씨 상처입은 차들을 말하는데 새 차보다 그런 차를 요구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조금도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 지배인 동무! 우리가 모두 새 차만 요구한다면 낡은 차들은 모두 버려야 합니까? 전 아직 나라 살림이 넉넉치 못하다는 걸 알구 있습니다.〉

글쎄 얼마나 당돌한 말입니까? 지배인도 그만 말이 막혀〈좋소. 동무의 요구대로 해 주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낡은 차 한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형편 없는 것이였지요. 본넷드 스윗치도 없이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것이라든지 미쏭에서 기름이 줄줄 흘러 내리는 것이라든지…기관총탄에 기관 뚜껑이 뚫리운 것이라든지…

그날 밤 이였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끝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자동차고에 불'빛이 환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오늘 배치된 그 청년이 술불을 피워 놓고 손을 쬐여 가며 그 《마당차》를 손질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원 성미두… 급하다구야, 우물을 들고 마실 사람이군. 오늘이야 배치 받은 날인데 푹 쉬고 래일 부터 하지.〉

이렇게 소리친즉

〈네, 이제 곧 끝납니다.〉

라고 대답 하고는 여전히 작업하는 것이였어요.

그 후 어느 일요일 날 저녁이였지요. 그 고 인식 동무는 어디에 갔다가 땀을 철철 흘리며 무엇인가 잔뜩 걸머지고 돌아 왔습니다. 그는 미리 산에 다니며 전쟁때 마사진 자동차들을 봐 두었다가 남들이 쉬는 날 그 부속품들을 뜯어 온 것이지요. 그는 배낭을 풀르더니만 그 안에서 녹쓴 철물들을 끄집어 내여 빡빡 닦기도 하고 기름칠도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얻어 온 부속들을 자기 차의 고장난 부속들과 갈아 마추군 하는데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그의 차는 면모를 일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에 풀색 뼁끼칠까지 다시 하고 조향간에는 백색 은분칠까지 해 놓으니 눈이 부시도록 나무랄데 없는 새차가 되였지요. 그놈의 《마당차》가 새차로되여 지심을 울리며 거물파도 같이 내달리던 그날 난 정말 그의 고매한 정신 앞에 머리가 숙으려 드렸수다.》

기사장은 일단 이야기를 끊고 담배를 붙여 물더니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정말 그는 국가 재산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동무이지요. 지어는 땅에서 주운 녹쓴 나사못 하나 허술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그에게는 언제나 각종 예비 부속품들이 몇달분씩 마련되여 있지요.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가 비누 물로 차를 〈목욕〉시키다가 본넷트의 락카칠에 실금이 간 것을 발견했지요. 세밀히 살펴 보고 원인을 캐여 보니 자기가 신발에 흙이나 모래가 묻은대로 차에 오른 때문이였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제집 방안으로 드나들 때도 흙묻은 신발로 드나들 수 있단 말인가?) 그 다음부터 그는 깨끗한 걸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발을 꼭꼭 문질르고서야 차에 오르군 했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난 김이니 내 하차공 동무들이 혼나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리다. 한번은 그가 건설장에 모래를 시른 후 차 밑에서 그랏지를 조종하는데 적재함에서 텅텅하는 소리가 났대요. 쳐다보니 몇명의 하차공들이 삽날에 묻은 흙을 적재함에 대고 털고 있었답니다. 올라가 본즉 적재함 밑'바닥이 찢기여 있었지요. 인식 동무는 그 즉시로 손칼을 꺼내여 그 자리를 매끈히 다듬어 놓고 뼁끼칠을 해 놓았습니다. 하차공들은 량심이 가책되여 그 후부터 아예 그런 버릇이 뚝 떨어졌답니다.》

나는 기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못내 감탄하였다. 자동차를 애끼는 지극한 사랑, 그로부터 출발되는 일상적인 자검 자수, 바로 이런 것들이 그의 50만 키로 무사고 운전의 《비결》로 되였으리라!

며그나 지나서 우리는 고 인식 동무를 만났다.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여서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뭐 별로 말할게 있어야지요.》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날 저녁 그가 가지고 다니는 《운전 수첩》을 얻어 볼 수 있었다.

그의 《운전 수첩》엔 실로 세세한 것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 자기 자동차의 각 부문과 부속들의 성능과 수명들이 적혀 있었고 또한 어느 부속은 어느 때 갈아 마췄으며 어느 부속은 어느 때 사고난 일이 있었다는 것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여 있었다. 또한 거기에는 매 주간별로 되는 구체적인 자검 자수 계획서도 붙어 있었다. 즉 월요일엔 기관 부분, 화요일엔 각종 조종 장치들, 수요일엔 적재함, 목요일엔 바퀴 부문 등등

지어 그의 수첩엔 통행하는 도로들의 지리적 상태들까지 일일히 적혀 있었다. 즉 어디에는 도로의 구배가 어떻게 되고 도로와 철도 교차 지점은 어데이고 어느 지점에 가면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밀집되여 있다는 것 등이다. 그리하여 고 인식 동무는 이략도들을 환하게 머리에 넣고 해당한 구배도에 가서는 거기에 적응한 속력을 놓고 학교나 유치원들이 밀집된 지구에서는 경적을 울리며 차를 천천히 몬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매일의 일기 예보까지도 세심히 듣는다. 례하면 날씨가 몹씨 추울 것이 예견되는 날에는 랭각수를 철저히 뽑아 둔다든가 또 작업을 떠날때 차우에다 모래나 가마니, 곡괭이등을 반드시 싣고 떠난다. 만약 처음 다니는 길에서 차바퀴가 빠지면 구멍이에 가마

니를 갈고 얼음판에서는 모래를 뿌렸다. 비록 이런 것은 적은 일이긴 하지만 무사고 운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그의 세심한 성품은 나중에는 가정에까지 퍼졌다. 한번은 그가 신미리에 나가 곱대거리로 일하고 있는데 안해가 오후에 폭우가 내린다는 일기 예보를 알리려 10리'길도 마다하고 달려왔었다. 안해는 비가 오면 신미리의 도로가 죽탕처럼 되여 자동차가 빠질 수 있다는것을 알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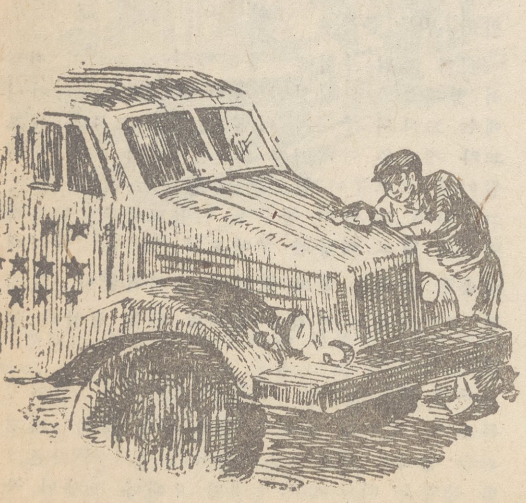
그는 안해의 말을 듣고 전체 작업반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폭우가 내리기 전에 짐을 싣고 신미리 도로를 빠져야 했다.

《자 일을 다그칩시다.》

그들은 상차공들을 도와 불이 번쩍나게 일했다. 그들이 짐을 가득 싣고 시내에 들어섰을 때 과연 하늘 땅도 분간 못할 폭우가 담아 부었다. 만약 제때에 일기 관계를 알고 손 쓰지 않았다면 차는 지금쯤 신미리의 진탕 속에 빠져서 큰 지장을 가져올번 했던 것이다.

어찌 그 뿐이랴! 심지어 고 인식 동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까지 세심하게 연구하였다.

어느날 밤 그가 건설 부재를 싣고 달리는데 비가 억수로 내렸다. 거리엔 사람의 래왕도 끊기고 라이트 불'빛에 보도 우로 비'방울이 구울러가는 것이 똑똑하게 보였다. 그런데 극히 짧은 일순간 유리창 앞에 무엇인가 검은 그림자가 언뜻하는 것이 보였다. 정신을 집중하여 보니 우비를 푹 뒤집어 쓴 사람이 앞에서 걸어 가고 있었다. 다급하게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황한 나머지 길 옆으로 비낄 대신에 자꾸만 도로의 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였다. 고 인식 동무는 생각하였다. (그렇다. 운전수란 사람의 심리을 잘 아는 의사로도 되여야하며 심리 학자로도 되여야 한다.)



그는 이날부터 통행인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로 가득차기 시작하였다.

—매마른 바람이 부는 날엔 보행자들이 자동차에서 이는 먼지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가 어느 쪽으로 걷든지 간에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피하려고 길을 건너 달릴 수 있다. 때문에 운전수는 언제나 바람부는 방향을 판정하고 차를 몰아야 한다.

—시골에서 처음 왔음직한 늙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의 행동에 세심한 관심을 돌려라! —어머니와 어린이가 서로 떨어져 갈때는 어머니 보다 어린이의 거동을 잘 살펴야 한다. 자동차가 가까와 지면 어린이는 차야 어떻게 되였던지간에 당황한 나머지 어머니를 쫓아 도로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우마차를 만나면 살근살근 경적을 울려야 한다. 급하게 경적을 울리면 후다닥 놀랜 마소들이 내달리다가 그만 보행인들을 받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길 옆에서 고무공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수가 있다. 그런때면 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 고무공 뒤로 어김없이 쪼무래기들이 달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고 인식 동무는 바로 이런 사람이였다. 그러하였기에 근 10 년간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1 건의 사고도 없이 50만 키로를 돌파하였고 그가 지도하는 작업반은 영예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 칭호를 수여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와 헤여질 때 고 인식 동무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였다.

《금년에는 10 대 과업 관철을 위하여 자검자수 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 실동률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뜰악에 나서니 그의 애차 3424호가 머물러 서 있는데 알른거리는 그 차체에 붙은 열 개의 붉은 별은 외등'빛을 받아 더욱 유난히 빛났다.

본사 기자 한 희만

기술혁신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한 재 환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는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을 제시하면서 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킬 것을 금년도 10 대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오늘 우리는 기술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바로 7 개년 계획은 기술 혁명의 계획이며 모든 경제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의 중요 예비는 기술 혁신에 있다. 모든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촉진하며 농촌 경리에서 농산 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촉진 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시킴으로써만 금년도의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과업을 하루 속히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당은 기술 혁신 운동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밀접히 결부하여 전개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없이는 기술 혁신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없다.

자력 갱생이란 풀이 나고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살며 싸워 승리하는 불요 불굴의 혁명 정신이며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더 많게 하는 창조적 정신이며 도달된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의 정신이다.

이것은 적과의 판가리 싸움에서나 사회주의 건설에서나 항상 견지하고 고수하여야 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립장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초소에서 있는 모든 청년들이 가져야 할 혁명 사상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인 만큼 반드시 자력 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자체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 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 위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도 기술 혁명에 있어서도 자력 갱생의 정신이 있어야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기술 혁명을 자력 갱생의 원칙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크게 나눠서 두 개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한 측면으로는 기술 혁신의 예봉을 우리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돌려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한 측면으로는 기술 혁명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난관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첫째 측면은 기술 혁신을 어떤 방향에서 하며 새로운 과학 기술의 힘을 주로 어디에 돌려야 하는가를 말하여 준다면 둘째 측면은 기술 혁신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1

자력 갱생의 정신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결국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 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는 기술 혁신이 없이 건설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당은 과학 기술의 힘을 우선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가장 절실한 부문,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시키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다.

비날론의 연구와 그의 공업적 생산의 실현, 무연탄 가스화, 콕스탄을 쓰지 않거나 적게쓰는 제철법의 연구 등을 비롯한 지난 시기의 기술 혁신의 고귀한 성과는 바로 당의 이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달성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만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혁명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과학 기술의 성과를 자립 경제를 튼튼히 하는 데 최대한으로 리용할 수 있다.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부치는 문제도, 또한 그의 토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문제도 오직 새 기술에 토대해서만 가능하며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제품의 품종수와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문제도 알곡을 비롯한 농촌 경리 모든 부문의 발전도 역시 선진 기술을 부단히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모든 자원에 확고히 의거하여 원료 기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는 기술 혁신이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원료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면서 우리 나라에 있는 자재와 원료들을 대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적극 만들어 내야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원료 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합리적인 생산 공정을 창안 도입한다면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술 혁신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원칙은 인민 경제 매개 부문, 모든 초소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기 부문에서 가장 약한 고리, 생산 계획 수행과 새로운 예비 동원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를 푸는 데서 기술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그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허다한 예비가 있으며 또한 사소한 기술적 문제만 풀면 새롭게 동원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

대안 전기 공장 절연물 직장 청년들은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여 수입 자재 까르톤지를 국내산 경판지로 대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손 로동에 의한 생산 공정을 퇴치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생산 공정의 80 %를 기계화함으로써 종전에는 98명의 로력으로 바빠하던 작업을 42 명을 가지고도 매일 계획을 150~180%씩 초과 수행하게 되였다.

만일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들처럼 자력 갱생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부문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를 푸는 데 력량을 집중한다면 우리의 경제 발전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위대한 발견》보다도 자기 부문에서 당면하게 걸린 것으로부터 자기가 맡고 있는 초소에서 더 예비를 발굴하는 데서 긴절한 문제를 푸는 것으로부터 기술적으로 혁신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

2

기술 혁신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부닥친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다.

기술 혁신도 바로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 것을 창조하는 혁명 사업인 것만큼 결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없다.

여기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을 수 있으며 실패와 우여 곡절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이것은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푸는 것과 동반되는 사업이므로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매개 청년들에게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맑스-레닌주의 기치 밑에 조선 혁명을 조선 인민 자신의 주체적 힘으로 해 나가야 하며 또 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주견과 혁명적 립장으로 목숨을 걸고 적의 무장을 탈취해 가면서 자체를 무장하였으며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중첩된 적의 포위 속에서 폭탄, 피복, 의약품 등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고 없는 것은 찾아내면서 강대한 일제놈들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였다. 항일 투사들이 발휘한 바로 이와 같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만 가진다면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에게는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와 고귀한 경험이 있는 조건 하에서 이것은 오직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만일 다른 모든 조건은 충분히 조성되여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술 혁신 운동에 적극 나서지 않고 또한 매개 사람이 제앞의 일을 제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 줄것만을 바란다면 기술 혁신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일찌기 기술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는 신비한 것이라는 관점과 새 기술을 달가와 하지 않는 보수주의, 소극성을 반대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기술 혁신 운동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였다.

당의 호소에 궐기한 우리의 청년들은 기술에 대한 온갖 신비주의와 소극성을 박차고 기술 혁신을 위한 일대 대중적 행군을 전개하였다. 특히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전개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발기를 심장으로 받들고 단 1 년 동안에 1만 3천 대의 공작 기계를 생산 해 냈으며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노력으로 대담하게 달라붙어 8 메터 타닝반, 3,000 톤 프레스를 비롯한 대중형 기계들을 만들어 냈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기술 혁신을 전개하여 몇 백번 실패하면서도 끝끝내 해내고야 마는 강한 정신과 인내성만 있다면 어떤 점령 못할 요새도 없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기양 뜨락또르 공장 로동자들과 청년들이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지난 한 해 동안에 2,003 건의 창의 고안을 하였으며 그 중 97.3% 에 해당하는 1,949 건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조립 직장을 비롯한 6 개 공정의 기계화 흐름선을 완성하였고 75 마력 대형 뜨락또르 생산을 위한 단능 설비들을 생산 보장하였으며 1 년 동안에 7만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년간 생산 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사실, 금천 농기계 공장 수리 직장 청년들이 단 1 대의 선반으로 3 개월 남짓한 기간에 500 톤 프레스, 볼반, 선반, 기중기, 동력 함마, 보링그 등 무려 10 종의 공작 기계와 대형 기계 설비를 생산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얻은 기술 혁신의 성과들 중 몇 가지 실례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술 혁신 과정에서 우만 바라 보면서 남이 해 줄 것만 바라는 현상이라든가 사소한 난관으로 하던 일마저 걷어 치우는 소극적 행동, 이것이 애로요, 저것이 곤난하오 하는 등의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을 배격하고 자기의 초소를 책임적으로 꾸려 나가는 강한 혁명적 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 혁명의 선두에 나서야 할 사람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다.

기술을 습득하고 그 발전의 선봉에 서는 것은 기술 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신성한 임무이다.

청년들이 기술 혁신의 앞장에 서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 당 정책과 혁명 전통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어떤 난관에 부닥쳐도 뚫고 나가는 강의한 의지와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는 혁명적 생활 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꾸준히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여야 하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정통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과학 기술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등급 더 높은 기능을 소유하기에 노력하며 창의 고안, 발명 합리화 사업을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당이 제기한 기술 혁신 과업 수행에서도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한다.



고중을 졸업한 후 농촌에 진출하여 자기의 리상과 행복을 고향 땅에서 활짝 꽃피우고 있는 평양시 만경대 구역 칠골 협동 농장 김 영선 동무에 대한 이야기

대동군 대동 고급 중학교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한 김 영선 동무가 농촌으로 진출한 것은 1957년 여름이였다.

학교에서 최우등생이였던 영선 동무는 그때 김 일성 종합 대학 생물학부에 입학할 영예까지 지니게 되였으나 스스로 그것을 단념하고 농촌 진출의 길을 택하였다.

그때 그는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다졌다.

(당은 지금 초고중 졸업생들을 농촌에로 부르고 있다. 나 역시 농촌으로 진출하겠다. 그리하여 장차 고향'벌에서 일하고 배우면서 나의 리상도 행복도 꽃피우겠다.)

그러나 막상 농촌에 진출해 보니 시련의 고비도 많았다. 농사'일에 익지 못한 그에게는 모든 것이 힘이 들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 오면 몸이 어찌도 피곤한지 공부할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결코 이에 굴할 수는 없었다. 그는 하루 바삐 농사'일에 익숙하기 위하여 남보다 갑절이나 애썼고 경험 많은 농민들에게서 허심하게 일을 배우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당이 초고중 졸업생들을 농촌으로 보낼 때 결코 이렇게 허송 세월이나 하라고 보낸 것은 아닐 것이다. 기실 오늘 농촌에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선진 영농 방법을 도입하는 일도 우리가 하여야 하며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는 일도 우리가 하여야 한다.)

그는 어느날 밤 자기의 책상 앞에 한장의 커다란 학습 전망 계획서를 써 붙였다. 늦어도 1960년까지 기수 시험을 치르고 장차 기사까지 될 학습 계획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구체적인 주간 학습 계획서도 나란이 부쳤다.

완강한 전투는 시작되였다. 그는 일단 수립된 학습 계획서를 끝까지 관철시키기에 힘썼다. 그래서 밤늦도록까지 공부하였다.

한번은 그의 어머니가 샐녘에 책상에 팔을 고인채 잠든 아들을 흔들어 깨우려하였다. 그

런데 아들의 입에서는 《사토…너토…접토…려토…》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흘러 나왔다. 그러더니 또 드르렁 거리며 코고는 소리가 났다. 아들은 남이 자는 깊은 밤에도 늦도록 공부하다가 책상 앞에서 앉은 잠을 자면서 잠'결에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는 생각으로 뿌듯하였다.

《얘야 이젠 한잠 좀 자렴…》하고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자 아들은 후닥닥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야 내가 지나치게 잤군. 자칫하면 어제 학습 계획을 못할번 했네…》

그러더니 밖에 나가 세수를 하고 들어 와서는 다시 책과 씨름하는 것이였다.

영선이의 열성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소낙비 퍼붓는 어느 날 밤 이곳 농업학교 선생의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영선이였다. 그는 함빡 젖은 비옷을 벗어 들고는 죄송한 듯이 말했다.

《선생님 밤중에 정말 안되였습니다. 기술 서적을 보다가 조곰 모를 것이 있어서요…》

그의 열성에 감동된 선생은 흔연히 그를 맞아 들여 밤 깊도록 그에게 각종 기술 문제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에도 물론 이런 일은 종종 있었다.

실로 밤중까지 불이 제일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것도 영선이네 창문이였으며 제일 빨리 켜지는 것도 영선이네 창문이였다. 그래서 마을 처녀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소곤거렸다.

《아마 큰 학자가 되려나 봐》

얼마 후 영선이는 민청 분조장으로 또 그 다음엔 민청 학습 강사로 되였다. 그의 나날은 몹시 바빴다.

그는 밤 늦게까지 자기의 기술 학습도 진행하고 학습 제강도 짰다. 그의 강의는 알기 쉬웠고 청년들의 심장을 틀어 잡았다. 간혹 병이나 무슨 급한 용무로 학습에 참가하지 못하는 동무들을 위하여서는 일일이 그의 집에까지 찾아 다니며 배워 주었다.

그의 이와 같은 활동은 비단 민청원들 속에만 그치지 않았다. 로인네들, 아낙네들, 할머니들,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당 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었다. 논밭에서 일할 때는 일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었다. 실로 오류'골의 《붉은 선동원》이였다.

한편 영선 동무는 농촌 청년들 속에서 기술 학습도 진행하였다. 그것이 농촌으로 진출한 자기의 응당한 임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열두 명의 청년들을 모아 놓고 기술 학습 소조를 조직하였다. 정기적인 학습으로는 일주일에 3회씩 야간에 하고 그밖에는 일터에서 작업하면서 하였다. 그는 동무들께 버릇처럼 말하군하였다.

《동무들! 생각해 보라구, 우리 농촌이야 말로 토양, 육종, 비료 작물 등 각종 농산 과학을 가장 빠른 길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실습장이며 〈종합 대학〉이란 말이요…》

영선이는 기실 생산 현장을 기술 학습반원들의 실습장으로 전변시켰다.

그들은 작업할 때 고향의 토양을 다루면서는 토양학을 연구하였고 봄에는 육종학, 여름에는 작물학과 식물 보호학, 겨울에는 농기계학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하니 한 층 더 리해가 잘 되였다.

또한 영선이는 언제나 자기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나갔다. 자기가 일하는 채소전에서도 여러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채소들을 심어 보았다. 그는 농장에서 처음으로 배추는 5계단, 오이나 시금치는 3계단으로 심었다. 그리하여 토지 리용률을 종전에 비하여 배나 높혔다. 게다가 도마도 같은 것은 어찌나 잘 되였는지 온 밭이 새빨간 빛으로 뒤덮였다. 정당 60 톤이나 수확을 내였다.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영선이를 《우리 마을의 보배》라고 불렀다.

영선이의 눈부신 활동은 기술이나 생산 령역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서도 항상 앞장에 섰다.

초중 졸업생인 스므살난 처녀 장 동무는 농촌 생활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었다. 영선이는 그를 벌써 스므번 이상이나 설복하였다. 그래도 처녀는 좀체로 개변되지 않았다.

한번은 그 처녀가 시내로 취직 자리를 구하려 갔다 오다가 영선이를 만났다. 영선이는 이렇게 말했다.

《정녕 고향을 버리고 가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그러나 동무는 고향을 떠나기 전에 차라리 나를 실컷 비판해 주오. 이 모든 전 내 책임이요. 내가 동무를 옳게 교양하지 못한 때문이 였수다…》

영선이는 진정으로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였다. 순간 처녀의 가슴은 찌르르해졌다. 자기와 같이 락후한 사람을 위하여 수십번이나 찾아 다니는 그, 그러다가 기어코 떠나려는 자기를 두고 오히려 자기 사업을 도리켜 보고 반성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가!

처녀는 목이 메여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을 쪽으로 달렸다.

…며칠 후 마을의 유치원 울타리에는 종전까지 없던 화단이 하나 생겨났다. 그것은 자신을 깊이 뉘우친 장 동무가 고향 땅을 위하여 남몰래 심은 첫 사랑의 씨앗이였다.

영선이는 일손이 부족한 집 일들도 제집 일 돌보듯하였다. 땔 것이 부족한 집에는 슬그머니 나무를 하여다가 쌓아 놓기도 하고 토끼우리가 낡아잔 집에는 연장을 들고가 말 없이 고쳐 놓기도하고 불이 안드는 집은 온돌도 수리해 주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영선이를 두고 아들처럼도 여기고 동생이라고도 불렀고 형님이라고도 불렀다.

그들은 곤난한 일이 생길 때나 아들 딸의 혼사가 생겨도 영선이를 찾았다.

드디여 영선 동무가 고향 땅에 기울인 노력은 꽃으로 피고 열매로 맺혔다.

그는 1960년에 여섯 과목의 기수 검정 시험에 합격되였고 그 이듬 해에는 나머지 한 과목을 마저 합격하여 영예로운 기수의 자격증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그가 지도한 기술 학습 반원들 중에서도 김 정숙, 김 호순, 현 서옥 등 수 많은 동무들이 기수 검정 시험에서 일부 과목에 합격했다. 투쟁은 언제나 행복을



낳는 법이며 청춘은 생활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다.

× ×

예로부터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법이다. 영선이는 협동 농장의 사랑동이로 장성하였다. 그는 작업 분조장으로 그 다음엔 작업 반장으로 되였다. 그리고 만경대 구역 민청 위원으로도 피선되였다.

청춘의 나날은 바빴다. 그러나 혁명의 시대, 폭풍우의 시대에 사는 청년으로써 어찌 투쟁이 없는 안온한 생활을 하고서야 살 맛이 있겠는가! 그는 될 수록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더 많은 짐을 떠 메고 싶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영선이는 날마다 밤을 잊다 싶이 일을 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몸을 념려하면 그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허허 젊은 시절에 일을 안하고 힘은 애꼈다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를 앞두고 영선이는 조선 로동당 정당원의 영예를 지녔다.

당증을 받고 돌아 오던 날 영선이는 마을 뒤 언덕에서 정다운 고향'벌을 흐뭇히 굽어 보았다.

1957년 당의 부름을 받들고 농촌에로 나온 후 고향 마을은 얼마나 달라 졌는가… 즐느런히 일떠선 농장의 문화 주택들, 수백 마리의 젖소며 닭, 오리들이 와글거리는 우'골의 축사들, 달리는 뜨락또르며 노래 부르는 스피카… 날마다 자라나는 젊은 기술 부대들…이 휘황한 농촌의 발전 속에 자신의 조그마한 노력도 깃들었다고 생각하니 무익하게 청춘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하여 그의 가슴은 한 없이 부풀어 올랐다.

오늘의 고향도 좋지만 래일의 농촌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랴!…어느새 당증을 받고 돌아 오는 남편을 마중하여 안해가 나왔다.

《여보 축하해요…》하고 안해는 살뜰하게 말했다.

영선이도 안해의 동그런 얼굴을 정다운 눈으로 처다 보면서 흐뭇이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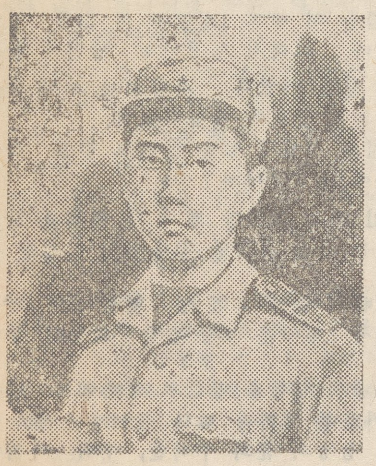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합시다. 나는 지금 온 천하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고 싶소—청춘의 보람, 삶의 높은 뜻을 알려거던 여기로 오라고 말이요…》

안해도 마주 웃었다. 동녘 하늘에서 달이 북이라도 울리듯 둥둥 떠올라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본사 기자

《나는 민청 총회에서 다진 결의를 실천했소.
그러나 당과 수령을 위하여 더 싸우지 못하는 것이 분하오.
동무들! 더 많은 적을 잡지 못하고 대오를 떠나는 것이 분하오…
나의 마지막 소원은 나를 조선 로동 당원이라고 불러 달라는 것이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공화국 영웅— 김 명제



민청원의 기개

윤 광 섭

1952년 7월 초순, 근위 제 86 련대는 전선 동부 월비산 일대에서 가렬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351 고지는 전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고지여서 적들이 이 고지를 빼앗기는 날이면 멀리 뒤로 물러가야 했다. 그러기에 놈들은 10 개월 전 부터 이 고지에 수다한 화점들과 각종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 사이 사이에는 지뢰를 총총히 묻었다.

적들은 이 고지를 발판으로 하여 아군 부대들을 월비산 이북으로 내밀어 보려고 미친듯이 발광하고 있었다.

그 때 김 명제 동무는 1 대대 2 중대 1 소대에 속해 있었는데 그는 입대한지 6 개월 밖에 안되는 19 세의 민청원이였다.

그러나 그는 전투장에서 발휘한 용감성과 대담성 그리고 뜨거운 동지 우애의 정신으로 하여 전투원들 속에서 신망이 높았으며 깊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어느날 구분대에 351 고지 습격 전투 명령이 내렸다.

전투를 앞두고 민청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명제 동무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론하였다.

《동무들! 우리들은 당의 품 속에서 자라난 김 일성 장군의 전사들입니다. 당이 우리를 키워주지 않았던들 우리는 이처럼 떳떳한 당의 전사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전투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임무라도 수행해 내고야 말겠습니다. 나는 맡은 전투 임무를 어김 없이 수행하는 훌륭한 민청원이 되여야만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화점 파괴조의 한 성원으로 망라시켜 주십시요.》

뒤'이어 조 을제 동무를 비롯한 여러 전투원들이 저저마다 어렵고 힘든 임무를 맡겠다고 결의해 나섰다.

전투 임무는 하달되였다. 김 명제 동무는 1 소대 화점 파괴 조장으로 임명되였다.

그 날 밤 전투원들은 결전의 길로 떠났다. 중대의 전투 서렬은 어둠에 잠긴 수림 속을 뚫고 적진에로 접근해 갔다. 주공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2 중대는 351 고지를 정면으로부터 돌격해 나가야 했다. 명제 동무가 속한 1 소대는 중대의 좌익에서 전진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아군의 습격에 겁을 먹은

적들은 이 날 밤도 이따금씩 위협 사격과 조명탄을 쏘군 하였다.

이것은 도리여 전투원들의 전진을 쉽게 해 주었다.

전투원들은 화광이 번쩍이는 순간 공병들이 개척해 놓은 통로를 보아 두었다가는 이동 전진하군 하였다.

깜쪽 같이 돌격선을 차지한 고지에는 참기 어려운 정적이 흘렀다. 복수의 총검을 벼리고 또 벼린 명제 동무와 그의 전우들은 흥분되는 심정으로 돌격 신호를 초조히 기다렸다.

이윽고 아군 포사격이 있은 후 돌격 명령이 내렸다. 전투원들은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고지에로 돌진했다. 총소리는 콩 볶듯 했다.

이 때 벌써 중대장은 전투 서렬의 우익에서 행동하는 3 소대에 유인 사격 명령을 내려 놈들의 화력을 이곳 저곳에 분산시키고 있었다.

머리 우로 그물을 치듯 총알이 엇바뀌며 날았다. 명제 동무가 책임진 화점 파괴조 성원들이 전진하던 쪽을 바라보던 전투원들의 가슴은 무거운 납덩어리로 지지 누르는듯 죄여 들었다.

특별히 그 쪽으로 적탄이 집중되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명제와 그 조원들은 비'발 치는듯한 탄우 속을 뚫고 적의 화점으로 치달아 가고 있었다.

잠시 후 요란한 폭음 소리와 함께 적 화점 하나가 산산히 쪼각 나고 불'길이 공중 높이 치솟아 올랐다.

전사들은 번쩍이는 화광 속에서 또다시 다른 화점을 목표로 돌진하는 명제 동무를 보았다. 고지의 지형 지물을 손금 보듯 꿰뚫고 있는 그의 일거일동은 번개와도 같았다. 기를 쓰며 발악하던 또 하나의 적 중기 화점마저 명제 동무의 기민한 행동에 의하여 박살이 되자 전투원들은 만세 소리 드높이 앞을 다투어 돌격해 나갔다.

그러나 적들도 만만히 수그러들지는 않았다. 전투원들이 은폐할 곳도 없는 가파른 경사면에 이르렀을 때 자취를 감추고 있던 적의 토목 화점 세 개가 불의에 총탄을 뿜기 시작하였다.

적들의 최후 발악이였다.

만약에 앞선 화점 파괴조원들이 적의 토목 화점들을 까부시지 못한다면 아군에게 큰 손실이 있을 것이였다.

지체할 수 없는 위급한 순간 화점 파괴 조장인 김 명제 동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어코 전투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에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조원들에게 적의 화력을 우측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가로 자빠진 나무를 뛰여 넘었다.

명제 동무는 적탄도 헤아리지 않고 적 화점 좌측으로부터 경사면을 주름잡듯이 치달아 올라갔다. 실로 손에 땀을 쥐는 긴장한 순간이였다. 그는 적 화점 가까이에 이르렀다. 하지만 명제 동무의 손에서는 수류탄이 날아가지 않았다.

《조장 동무! 수류탄을 던지우, 수류탄!》

조원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웨쳐도 비'발치듯 쏟아지는 탄우 속에서 들릴리 만무했다.

조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거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명제 동무는 배미리로 여전히 앞으로 기여갔다. 명제 동무에게는 다만 두 알의 수류탄이 남아 있을 뿐이였다. 게다가 급한 경사면에 던진 수류탄이 굴러내릴 위험성도 없지 않았다. 이런 정황을 타산한 그는 적 화점 후문으로부터 놈들을 까부실 결심을 내린 것이다.

그가 적 화점 후문으로 달음질쳐 갈 때 조원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정신을 이어 받은 수령의 전사가 어찌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랴만 걷잡을 수 없는 정황 속에서도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방도를 찾아낼 줄 아는 그의 지혜롭고 불타는 충성심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화점 후문에 다가붙은 명제 동무의 눈 앞에는 사격에만 혈안이 되여 있는 원쑤놈들이 보였다. 명제 동무는 두 개의 수류탄을 련거퍼 던졌다. 밉쌀스럽던 적 토목 화점에서는 원쑤들의 죽음을 고하는 요란한 폭음이 울리면서 연기가 확 풍겨 나왔다. 명제 동무는 화점 안에 뛰여 들어 놈들의 시체에서 수류탄을 거두어 가지고 오른편 우에 있는 화점을 향해 곧바로 달렸다. 조원들은 위치를 이동하면서 참호 안의 적들에게 기관단총 련발 사격을 들이대며 명제 동무의 행동을 엄호하였다.

명제 동무가 다섯 번째의 적 토목 화점을 짓부셨을 때 날쌘 전투원들은 참호 안의 적들을 후려 갈기고 고지 정점으로 육박해 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전투원들은 불과 30 분만에 적들이 《난공 불락의 요새》라고 떠벌리던 351 고지를

점령하고야 말았다.

고지 우에 공화국기를 꽂은 감격을 금치 못하여 목메게 만세를 부르는 전투원들, 서로 그러안은 채 놓을 줄 모르는 동무들……

—만세 소리여! 산과 들을 넘어 수령님이 계시는 평양으로, 고향 마을로 울려가라—명제 동무는 전우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승리의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명제 동무의 머리에는 수 많은 생각이 맴돌이치며 스쳐 지나 갔다. 그는 이 승리의 소식을 당과 수령께 그리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알려 드리고 싶었다.

명제 동무가 전선으로 탄원해 나올 때 이십여 리 길을 따라 나온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거듭 신신당부하였다.

《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행복과 새 살림의 길을 열어 준 당과 수령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일편단심 당을 위하고 수상님을 위해 싸운다면 너는 세상 떠난 아버지의 소원대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어머니의 당부를 명심한 명제 동무는 군무생활에서, 상관이 주는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서 항상 충실했다.

그는 점령한 고지를 사수하는 전투에서도 민청원의 기개를 남김 없이 발휘하였다.

날이 밝자부터 적들은 아군이 방어 준비를 갖추기 전에 손을 써 보려고 련속 달려 들었다.

그 때마다 전투원들은 《한 치의 땅도 원쑤에게 내 주지 말자!》고 구호를 부르며 적들에게 무리 죽음을 안기군 하였다.

스물 다섯 번째로 달려 드는 적 1개 대대와 맹렬한 공방전을 계속하던 때였다. 적 아간의 거리가 점점 좁혀 드는데 먼지와 포연이 자욱히 덮힌 고지는 사위를 분각할 수 없었다. 이때 고지 남쪽면 길목에 위치한 명제 동무는



힘에 겨운 전투를 하고 있었다. 적들은 명제 동무가 지키고 있는 곳으로 력량을 증강하여 일시에 돌파해 보려고 달려 들었던 것이다. 고지는 위험에 처했다.

명제 동무는 두 손으로 번갈아 내던진 수류탄이 적들의 발 밑에서 《쾅쾅》 파렬하는 것도 볼 사이 없이 이 쪽에서 저 쪽으로 달아다니면서 원쑤의 가슴팍을 마구 쏘았다.

참호 안으로 날아 든 적 수류탄을 되받아 던지며 싸우던 명제 동무는 어깨와 팔에 상처를 입어 마음 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였다. 그런데 코 앞에서는 적들이 욱실거렸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십여 개의 수류탄과 서리'발 같은 총창을 보는 그의 마음은 든든하였다.

갑자기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옆으로 몸을 홱 돌린 그는 참호 턱에 올라선 적 네놈을 봤다.

그는 비호 같이 원쑤들에게 육박했다. 놈들에게 미처 총도 들려 댈 틈도 주지 않은 명제 동무는 총창으로 원쑤들의 가슴팍을 마구 찔렀다.

순식각에 네 놈을 무찌르고 난 명제 동무는 《빨리 돌격하라》고 고아대는 놈들의 대가리 우에 수류탄 불벼락을 들씌웠다.

그리고 명제 동무는 천천히 자세를 낮추었다. 옆구리에 중상을 당한 것이다.

이때 그의 우측에서 싸우던 박 명수 동무가 명제 동무에게 달려 왔다. 명제 동무의 전호 앞에는 80여 놈의 괴뢰군 시체와 짓부셔진 총 가목이 가로 세로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1개 대대의 적과 판가리 싸움을 하는 격전에서 어느 전사인들 급하지 않으련만 고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길목을 지켜 자기 임무를 끝까지 수행한 명제 동무의 불굴의 투지와 뜨거운 심정에 박 명수 동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명수는 전호 바닥에 누워 있는 명제 동무를 와락 그러 안으며 불렀다.

《명제 동무! 명제 동무!》

명제 동무가 가늘게 눈을 뜨자 명수 동무는 《명제 동무! 정신 차려! 속히 후송해야 겠소》 하고 소리쳤다.

《후송…》이란 말에 정신을 가다듬은 명제 동무는 잠시 동안 명수 동무를 찬찬히 보다가 입을 열었다.

《명수 동무! 나는 원쑤와 싸우는 전우들의 곁을 떠날 수는 없소, 우리는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쳐야 하오, 원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버리기 전에는 전투장에서 떠날 수 없소.》

명수 동무는 그만 코'등이 찡해져 더 말을 못 했다. 참호 밑에서는 적들이 기여 오르는 소리가 다시 들려 왔다.

명제 동무는 안깐힘을 써서 일어 섰다. 그리고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적들을 맞받아 나아갔다. 명수 동무는 불사조마냥 싸우는 그의 옆으로 다가 가며 원쑤놈들을 족쳤다.

바로 이때였다. 고지 우측 릉선에서 우리의 중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고 기관단총 소리도 통쾌하게 울려 왔다.

아군의 반돌격이 시작된 것이다. 명제 동무의 정신은 점점 흐려갔다. 하지만 명제 동무의 마음은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싸우는 한길로 길게 뻗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친근한 전우들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나는 민청 총회에서 다진 결의를 실천했소, 그러나 당과 수령을 위하여 더 싸우지 못하는 것이 분하오. 동무들 더 많은 적을 잡지 못하고 대오를 떠나는 것이 분하오.

나의 마지막 소원은 나를 조선 로동당원이라고 불러 달라는 것이오.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명제 동무의 마디 마디의 이야기는 전우들의 가슴에 원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격분을 불러 일으켰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서슴 없이 바쳐 싸운 그의 불타는 심정과 그 숭고한 투쟁 정신은 우리의 심장마다에 힘있게 고동치고 있다.

부모들이 걸어온 고난의 력사를 잊지 말자

경지의 출생지는 어데인가



박 양엽

《너의 출생지 말이냐?》

토요일 저녁이였다. 기계 소리, 쇠'소리가 엉키여 떠들석하는 소음을 내며 누루는 저녁 교대 고동소리가 제철소 구내를 들성하게 울려 왔다.

야간 정양소 소장실의 전화벨이 찌르릉하고 울렸다. 하던 일을 말끔히 걷어 놓고 책을 펼쳐 들었던 박 영림 소장은 전화기의 수화기를 잡아 들었다.

《네 누구요? 내가 소장이요. 오, 난 또 누구라구, 경남이냐! 뭐 영화 구경? 좋아, 경자도 같이 가기로 했어? 그럼 내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의 아들 경남은 이 제철소 기계 직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면서 야간 금속 전문 학교에 다니고 있다. 경남이는 주물 직장에서 주형공으로 일하는 누이 동생 경자에게도 어머니와 함께 영화 구경을 가자고 미리 약속해 두었던 것이다. 제철소 영화관에서는 조선 예술 영화 《녀성 영웅 광부》가 상영되는 것이다.

아들과 딸이 정양소에 찾아 오자 영림은 두 남매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밀려 나오는 로동자들 속에 끼여 대건스페 구락부로 뻗은 넓은 길로 걸었다. 좌우로 층층 솟은 아빠트의 유리창들에는 석양 노을이 붉게 비껴, 탐스럽게 반짝였다.

…영화가 시작되였다. 화면에는 고아로 된 어린 최 연옥이가 지주집에서 다시 어느 광산 마을 집 민며누리로 들어 가는 장면이 나타났다. 영림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 왔다. 신통히도 자기의 지난 날과 똑 같았다.

연옥이가 광석을 등에 지고 그 지옥같은 굴 속에서 나오다가 쓰러져서 애기를 낳는 장면이 나타나자 영림은 그만 흐느껴 울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어느 광산의 녀성 광부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지난 날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낸 것만 같았다. 그는 뼈'속에 사무친 옛날의 일이 되살아 올라 쏟아지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자꾸만 씻었다.

영화가 끝나자 집에 돌아 온 경자의 머리에는 그 무엇인가 풀리지 않은 것이 있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영화를 보다 왜 울었어요?》

《어머니만 울었나, 뭐 나도 눈물 나와서 겨우 참았어. 아버지, 어머니도 바로 그런 고초를 겪었단 말이야.》

오빠인 경남이가 누이의 말을 가로챘다.

《그걸 누가 몰라 그러나요. 저 그런데 엄마 언제인가 우리 직공장 아바이가 날 보고<경자의 출생지는 어데지?>하고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철산동이지. 어데는 어데겠어요.>하고 말했더니 웃지 않겠어요. 그러자 모여 섰던 동무들이 출생지도 모르는 처녀라고 막 놀려 대는 바람에 난 부끄러워 혼났어요. 엄마 저의 출생지가 정말 철산동이 아니예요?》

《그렇지, 네 출생지가 철산동이 아니지.》하고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책을 펴 놓았던 경남이도 돌아 앉아 정색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죽음

어려서부터 로동을 시작한 영림의 남편 김성록은 지금의 황해 제철소인 송림 제철소《오끼구미》라는 일본 놈의 청부업자 밑에서 등'짐 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일'자리를 얻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였다.

새벽 첫 닭이 울면 안해인 영림은 일어나서 밥을 지었다. 밥이라야 썩은 대두박에다 보리를 섞은 죽이였다. 솔깡불을 켜 놓은 어둑컴컴한 방에서 남편은 몇숟갈 뜨고는 공장에 나가군 하였다.

공장에 나갔을 때는 새벽 세 시 전이였다. 그 때는 벌써 숫한 로동자들이 그 날의 일을 얻어 하려고 오돌오돌 떨면서 렬을 지어 서 있군 하였다.

이들은 모두 농촌에서 왜놈들과 지주에게 땅을 떼운 농민들이였다. 그러나 공장에서 쓰자는 인부 수 보다 일하겠다는 사람은 너무도 많았다.

왜놈 청부업자들은 이것을 미끼로 돈을 조금 주고도 배를 룽겨 가면서 로동자들을 마소처럼 부려 먹었던 것이다.

날이 훤히 밝은 다음에야 감독놈이 거들먹거리며 나타나서는 그날 일 시킬 사람들을 골랐다. 감독놈은 죽 렬 지어선 사람들을 훑어 보아가면서 《지정표》(일 시킨다는 표)를 주군 했다. 영림이의 남편은 다행이도 몸이 건강하고 남보다 늘 일찌기 나가군하는 편이여서 한 달이면 보름은 그래도 일을 얻어 하는 편이였다.

운반 로동은 아주 힘든 일이였다. 광석을 등'짐으로 정거장에서 용광로까지 져 날라오는 일인데 새벽에 시작해서는 밤 깊도록 종일 담배 한 대 태울 새도 없이 일했다.

그 때는 벌써 그들에게 두 아들이 태여 났다.

그러던 어느날 영림은 용광로에서 일하던 남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림이는 하던 일을 옆 동무에게 맡기고 다급히 돌아 서려고 했다. 그 때 《땅딸보》라는 왜놈 교대장이 그의 앞을 가로 막아 섰다.

《어데나 갔소까?》

《주인이 다쳤대요.》

《어. 알고나 있소, 일이나 하다 다치기나 보통이 아닌가.》하고 《땅딸보》는 마치 올빼미 같이 올려 돋은 눈알을 휘번뜩거렸다.

《다치는게 보통이라구요.》

영림이는 너무도 기가 차서 말도 잘 나가지 않았다. 왜놈 교대장의 말은 로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것이 무슨 큰 일이냐하는 말인 것이다.

사실 그랬다. 놈들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오뉴월의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았다.

용광로 작업 광차에 사람이 걸렸을 때도 놈들은 기계를 멈출수 없다고 그대로 내깔려서 용광로 속에서 타 죽기도 하고 출선구 막는 일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돈이 덜 든다고 기계를 설치하지 않아 숫한 사람이 불에 타 죽고 병신이 되군 했다.

영림은 《땅딸보》를 밀치고 곧장 용광로에 달려 올라 갔다.

그러나 이미 다친 남편은 병원에 실려 갔다는 것이다. 영림은 다시 병원으로 내달렸다. 병원에서는 그를 드려 놓지도 않았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데 있는가.

그 이튿날 치료비가 없다고 내쫓긴 남편은 며칠 못가서 영영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태산이 무너진 것 같았다.

영림은 울었다. 땅을 치며 목놓아 대성 통곡하였다. 세상은 너무도 무심하였다.

그러나 영림은 자기의 운명이 못된 팔자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이 제선 직장 로동자들과 함께 임금 인상과 시간 로동제를 부르짖으며 파업 투쟁을 전개할 때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또 팔자 타령이요.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은 왜놈들 때문이란 말이오. 서로 힘을 합해서 싸워야 하오. 그래 당신은 못 들었소. 저 장백산에서 왜놈들을 쳐부시고 있는 김 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 말이오. 왜놈들이 망하는 날이 꼭 오고야 말게요.》

영림은 애들의 장래를 위해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게 굳건히 살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김 일성 장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앞이 훤해지군 했다.

왜놈 교대장《땅딸보》는 감히 영림이를 직장에서 내쫓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후부터는 영림에게는 남모르는 고통이 생겼다. 남편이 돌아 갈 때 그는 만삭이였다.

그러나 영림이는 배를 졸라매고 가쁜 숨을 쉬여가며 일했다. 만약 놈들에게 이것이 알려지는 날엔 직장에서 쫓겨나는 판이였다. 놈들은 그때 태모들을 직장에서 사정 없이 내쫓군 하였던 것이다.

형타 작업은 들었다 놓기 조차 무거운 방망이로 탕탕 내려쳐서 벽돌을 만드는 일이다. 하루 세끼 밥을 제대로 먹고도 저녁 때가 되면 허기'증이 일어나 정신이 아찔하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은데 임신 막달, 그 남아 왜놈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겨가는 이 일은 정말 죽지 못해 하는 일이였다.

며칠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배를 그러쥐면서 그는 하루도 쉬지 못했다. 하루만 쉬여도《땅딸보》는 그가 일 안 나온 리유를 밝혀 당장 내 쫓을게고 그렇게 되면 뼈만 남은 애들마져 굶겨 죽이고 말 것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40년 어느날이였다. 이날도 영림이는 형타 마치를 들고 숨을 몰아 쉬며 탕탕 맥 없이 내려 쳤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나더니 그만 그자리에서 해산을 하게 되였다.

영림이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옆에서 일하던 동무들이 그를 껴 안아 일으켰다. 그러나 애를 싸 줄 포대기는 고사하고 천 한 쪼박 없었다. 바로 옆에서 영림의 사정을 잘 아는 한 녀인이 자기의 감장 치마를 얼른 벗어 애를 싸주었다. 그러나 치마를 벗은 이 녀인은 몸 둘 곳이 없었다. 그는 얼른 변소에로 달려 갔다. 또 다른 녀인이 애를 안고 영림이를 부축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녀인의 치마를 도로 갔다 주어서야 치마를 벗었던 녀인은 변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때 녀성 로동자들의 형편은 바로 이러했다.

그 이튿날부터 당장 영림이는 일 나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작업장 뒤'담벽 밑에 벽돌을 쌓아 울타리를 만들고 그 속에 그대로 피'덩어리인 애를 눕혀 두고 일했다. 교대장 놈이 없는 눈치를 봐서 짬짬이 젖을 먹이군 했다.

그러나 며칠이 못가서 교대장 놈에게 들키였다.

《영림이나 래일부터 일이나 그만 두어해.》

그바람에 함께 일하던 녀성 형타공들이 치미는 격분을 참을 길 없어 형타 떡메를 둘러메고 달려 들었다. 《당신. 녀편네는 애를 안 낳았소.》

《당신도 사람이오?》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린 다 그만 두겠소.》 하고 제가끔 대드는 바람에《땅딸보》는 비실비실 물러 나가 버렸다.

그러나 일은 이것으로서 무사하지 않았다. 그놈은 일본 경찰에 《불온 사상》을 가진 자가 형타공들 속에 끼여 있다고 고자질 했다. 그 바람에 숫한 형타공들이 놈들의 경찰에 불리워 가서 모진 매를 맞았다.

그러면서도 애오라지 목숨을 위하여 일을 계속해야 했다.

그 애가 바로 경자이다. 경자는 이렇게 태여난 처녀이다.

하니까 그의 출생지를 정확히 따지고 든다면 마땅히 내화물 직장 형타 작업장이래야 옳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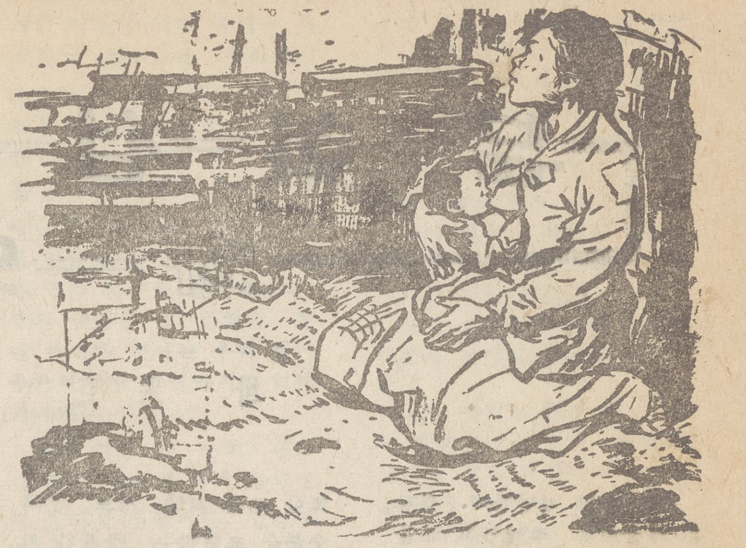
이것을 결코 희귀하게 여기지 말라.

조선 로동자들의 지난 날 형편이란 바로 이러 했고 그의 자녀들이란 이렇게 태여나 자라난 것이다.

오늘의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

8.15 해방이 되던 날 영림이는 목이 메도록 모든 로동자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아무리 만세를 불러도 꿈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만세만 부르지 않았다.—제철소를 지키고 우리 손으로 쇠'물을 뽑아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가자 그는 그 길로 내화물 직장에로 달려 갔다. 그는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여러분! 인젠 우리의 제철소가 되였습니다. 지금 쫓겨가는 왜놈들은 우리 제철소를 파괴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제철소는 우리 로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철소를 지켜내고 복구합시다.》

영림이의 이 호소에 로동자들은 곤봉과 목도 채들을 얻어 메고 공장을 보위해 나섰따. 제철소 복구 위원회가 조직 되자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된 영림에게는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며칠이 안가서 제철소는 선철을 뽑는 용광로며 강철을 만들어 내는 평로가 복구되기 시작했다.

영림에게는 날과 더불어 복이 쌍으로 날아 들었다.

왜놈 때 소위 《량반》들이 살던 주택도 한채 차례지고 애들도 학교에 들어 갔다. 그 후 영림이는 내화 련와를 만드는 데서 혁신을 일으켜 국기 훈장 3급을 받았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미국놈들과 그 주구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공무 동력 직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맏아들 경호가 전선을 탄원해 나섰다.

《어머니, 다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겪은 그 쓰라린 옛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선으로 나가겠습니다.》

《장하다 어서 나가라! 원쑤들을 물리치고 돌아 오라, 제철소 일은 근심 말고!》

이날 어머니는 맏아들 경호를 기쁜 마음으로 전선에 보냈다.

영림은 원쑤들의 맹폭 속에서 밤을 재워가며 전선에 보내는 물자를 만들어 냈다. 그러던 1952년 8월 어느날 영림은 아들의 글씨가 아닌 편지 한장을 받았다. 겉봉투를 뜯어 편지 사연을 읽어 내려 가던 그는 편지에 방울진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영림은 인차 눈물을 거두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설음이 어찌 북바치지 않으련만 해방된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성스러운 싸움에 아들을 바친 조선의 어머니로서 응당한 긍지를 느꼈으며 아들이 못다한 일을 해줘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눈물을 거두었다. 원쑤에 대한 증오가 더욱 불타 올랐다.

그 때로부터 영림은 더욱 굳세게 싸웠다.

우리 조국은 바로 이처럼 해방된 조선 인민들이 전선에서, 후방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피를 바친 대'가로하여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수호되고 더욱 굳건해졌다.

오늘 영림네 집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행복도 결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다. 당의 부름 받들어 원쑤와의 가혹한 싸움을 통하여 창조적이고도 영웅적인 로력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어머니는 어쩌면 그 영화 주인공인 최 연옥이와 꼭 같을가!》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경자는 너무나 신기하다는 듯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경자는 처음 들었어. 난 다 알구 있었어, 그때 조선 로동자들의 형편은 누구나 그랬으니까 영화도 꼭 같지 뭐야.》

《그렇다. 침략자가 있고 자본가, 지주가 있는 세상에서는 로동자 농민이 그처럼 고되게 살아야 한단다. 정말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들에게 당이 없고 조국이 없어보라. 오늘을 꿈에나 생각해 보겠니, 너희들도 오늘이 귀중하거던 어제'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장에서 밤 열 한시를 알리는 고동 소리는 마치 그들의 보다 휘황한 앞날을 축복해 주듯 길고 요란하게 울려 왔다.

문화성과 의모

박 응 호

오늘 우리 청년들의 생활은 깨끗하고 소박하고 규률있고 인간미로 충만되여 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높은 사상성과 정치적 각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성의 면에서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문화성은 소박하고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활기있게 걸어가는 청춘 남녀들을 보라. 그들로하여 거리와 마을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정서적인가. 참으로 청년들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거리와 마을은 더 아름다운 것이며 청년들의 풍모가 고상할 수록 거리의 풍모도 더 고상해지는 것이다. 실로 청년들을 두고 거리와 마을의 얼굴이라 함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단정한 옷 차림은 청년들의 인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교양 정도, 문화 수준을 표현하는 중요한 척도로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겉 볼 속》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의모를 보고 그의 정신 세계를 읽어볼 수 있다는 말이다.

문화성이 있는 사람의 옷차림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다. 반대로 옷 차림을 너절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례외 없이 문화성이 부족한 사람이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 차림은 그의 생활을 유쾌하고 명랑하게 하며 따라서 이런 사람은 생활도, 사업도 알뜰하고 질서있게 잘해 나간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청년들 속에서는 옷차림을 너절하게 하고 다니는 현상이 부분적이기는 하나 가끔 발로되군 한다.

옥의 티가 눈에 잘 띄이듯이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제고된 조건에서 이러한 현상은 류별나게 우리의 눈에 잘 띄인다.

—일요일의 네거리는 젊은 청년 남녀들로 물'결치고 있다. 그들은 한결 같이 모자를 단정히 썼고 바지 역시 곱게 주름을 잡았으며 구두 또한 반짝반짝 윤이 났다. 그런데다 청춘의 약동하는 힘이 뿜어나는 환한 얼굴이며 씩씩한 걸음새며가 여간 대견스럽지가 않다. 이러한 청년들과 활기 띈 거리 역시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런데 불쑥 한 청년이 뻐스에서 내렸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은 댄 머리 바람인데다가 외투는 우에다 걸치였으므로 소매와 외투 깃이 앞뒤에서 펄럭거렸다. 그런데다 두 손은 바지 주머니에 찌르고 태연히 걸어가고 있다. 그가 나타남으로써 순식간에 거리의 아름다운 정서는 깨여지고 말았다. 본인은 《멋》을 피우노라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보는 사람은 참으로 딱할 지경이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아직도 우리 생활에 남아 있는 것인가?

이런 청년들은 흔히 옷차림이란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과는 별로 관계되지 않는 것으로 잘 못 생각하기 일수이다. 이런 청년들은 옷 차림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것을 어떤 《멥시'군》으로 간주하며 자신들은 비문화적인 옷 차림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옷 차림은 생활 문화에 있어서 형식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형식은 반드시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만치 우리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의모가 단정한 사람일 수록 그의 정신 상태 역시 아름다우며 그의 사상 역시 건전하고 혁명적인 것임을 우리는 생활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게 된다. 그들은 동무들이 의모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멥시쟁이 들이군, 우리에게 멥시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비웃기까지 한다.

이 말의 본질은 문화성 일반을 사치로 간주하는 부르죠아적 문화관의 반영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부르죠아지들의 문화 생활이란 다름 아닌 사치 생활이며 우리에게는 전연 인연이 없는 퇴폐적이고 변덕스러운 각종 형식 차림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생활 태도를 배격하며 반대한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문화 생활 일반을 반대하는 구실을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과거에 착취와 억압 속에서 자신들의 창조물을 자신들이 향유할 수 없었다. 일제는 조선 인민을 자기들의 영원한 노예로 얽매기 위하여 조선 사람들에 대한 몽매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조선 인민의 찬란한 문화 유산과 민족 예술을 말살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우리 말과 우리의 생활 양식까지도 없애 버리려고 하였다.

결과 해방 전 우리 나라의 문화 발전은 억제 당하였고 문화적 생활이란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인민이 주권을 쥔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들의 문화 수준이 부단히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문화적 락후성을 청산할 수 있는 물질 경제적 토대가 이루어졌다. 우리에게는 먹고 입을 근심 걱정이 없어졌다. 인제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더 좋게 살겠는가가 문제로 되였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의 문화 수준의 발전은 경제적 변혁에 뒤떨어지는 법이다. 때문에 8. 15 해방 전의 낡은 생활 습성, 문화적 락후성의 잔재는 아직 일부 분야에서 일정하게 남아있어 이러저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투쟁은 낡은 관습,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는 사상 개조 투쟁과 결부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인류 력사 발전에 있어서의 최고의 문화,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지니고 있다.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릴 줄 모르는 청년들이 어찌 이러한 문화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부분적인 청년들 속에서는 옷차림 등에서 지나치게 《멋》을 부리며 보기 흉칙스럽게 하고 다니는 현상들이 있다. 이러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선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청년들은 옷차림에서 양풍을 결정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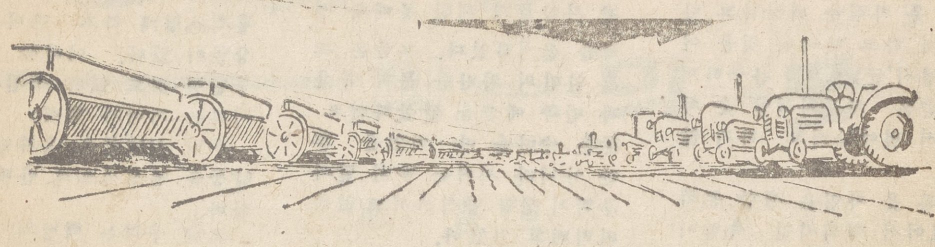
오늘 우리는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청년들 앞에는 실로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이 놓여 있다.

우리 청년들은 결코 사치와 양풍, 안일성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혁명적 사상은 옷 차림에 이르기까지 표현되여야 한다. 소박하고 검박하면서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차리고 다니며 또 그렇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나라는 바야흐로 전면적 기술 문화 혁명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다름질 치고 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책임 또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청년들이 아름답고 검박하고 깨끗한 생활 문화 창조의 선구자가 되며 이 땅을 향기 그윽한 문화적 화원으로 꾸리는데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김 창규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는 오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선 우리 사회주의 농업의 성숙된 요구이며 우리가 힘을 집중하여 해결하여야 할 가장 긴절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면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작물별로 되는 매 작업 공정을 모두 기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논'벼, 밭'벼, 옥수수, 감자, 공예작물, 축산, 잠업, 과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기경, 정지, 파종, 제초, 시비, 수확, 탈곡, 운반 등 모든 작업 공정들을 전부 기계화 하는 것이다.

례하면 논'벼 재배에서 우선 기경, 정지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랭상모를 길러내기 위한 작업(문짝 짜기, 나래 엮기, 새끼 꼬기, 모판 정리, 락종, 모판 관리 등) 모뜨기, 물써레, 이앙, 시비, 제초, 관수, 수확, 탈곡, 운반 등의 전 작업 공정을 모두 기계화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 농기계와 중소 농기계 및 축력 농기계들을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경지의 지리적 특성과 영농 방법의 집약화 정도가 높은 일련의 사정들과 관련된다. 즉 현대적 동력 기계를 도입하기 곤난한 지대와 작업 공정들에 대해서는 축력 기계를 도입하며 인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특수한 작업 공정에 대해서는 간단한 기계들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작업 공정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평남도 내당 및 농촌 경리 일'군 협의회에서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농기계들을 더 다양하게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축력 기계들도 더 많이 만들어서 이것들을 잘 리용한다면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능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로동을 헐하게 하고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력 기계화도 좋고 단순한 농기구들을 개량하여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기계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위하여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인가?

—논'벼 재배에서

논'벼 재배의 기계화에서 중심은 다회 기경과 써레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화학 비료와 퇴비의 운반 및 뿌리는 작업을 뜨락또르와 축력에 의하여 진행하며 품이 많이 드는 이앙 작업을 점차적으로 기계화 하여야 한다.

또한 뜨락또르와 살초제에 의한 제초 작업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여 지금까지 많은 경우 인력에 의하여 진행하던 중간 제초 작업과 수확 작업을 기계화 하여야 한다.

우리는 숙천군 룡덕 협동농장의 금년도 기계화 작업 계획에서 그 좋은 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우선 랭상모를 길러내는 데서 문짝 짜기, 나래 엮기, 새끼 꼬기를 동력 기계화하고 창문지에 기름 먹이는 작업은 인력용 도유기로 하며 모판은 물이 저절로 흘러 들 수 있는 곳에 잡되 그 초벌 정리는 뜨락또르로 하고 락종은 인력용 파종기를 쓰며 모를 뜨는 것도 종전처럼 맨손으로 뜨지 않고 능률적인 모뜨기 기구를 만들어 리용하기로 하였다 본답 작업에서 기경은 논 면적의 82%를 뜨락또르가 하고 나머지 수렁논과 다락논을 축력으로하며 논 물써레의 72%와 논 제초의 60%를 뜨락또르가 담당하고 그 나머지 작업과 2.4디를 뿌리는 작업을 축력이 담당하게 하였다.

벼 수확은 뜨락또르로 지난해에 8정보 밖에 하지 못하였던 것을 금년에는 논 면적의 60%에 해당한 220 정보를 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협동 농장에서는 자기의 지대적 특성과 구체적인 작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반적 작업 공정을 기계화할 방도를 세웠다.

—밭'벼 재배에서

밭'벼 재배에서는 파종전 정지 작업을 기계화하며 작업 공정이 복잡하지 않는 평규식 기계 파종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뜨락또르와 축력에 의한 경써레 작업, 중경 제초 및 살초제 산포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뜨락또르와 고정 양수기에 의한 관수 작업을 세밀히 조직하여 기계화의 비중을 높이며 뜨락또르에 의한 수확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옥수수 재배에서

옥수수 재배에서는 기경 작업과 일부 작조 작업(이랑을 짓는 작업)과 파종 제초 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경사 기복이 심한 포전에서는 뜨락또르 뒤에 계렬식 후치를 달고 진행하는 기계화를 도입하는 데 중심을 두고 축력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제초 작업을 전반적으로 기계화하여야 한다.

—과수 재배에서

묘목 굴취, 계단 축조, 구덩이 파기 및 중경 제초 작업을 기계화하며 동력 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과수원에서의 약제 산포는 중소형 뜨락또르로 실시하며 실과 따는 작업의 기계화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아마 재배에서

아마 재배는 포전이 평탄치 못하고 기복이 심한 조건에서 동력 조파식 기계 파종과 함께 능률적인 행궁식 파종의 비중을 높이고 파종 전 진압 작업을 철저히 진행하며 동력과 축력 수확기를 배합하여 모든 포전들을 기계로 수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자 재배에서

감자 재배에서는 특히 품이 많이 드는 수확 작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동력 및 축력 감자 수확기에 의한 수확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수송 작업에서

자동차와 뜨락또르에 의한 수송 작업과 함께 있는 역축에 우차를 다 메우며 산간 지대에서는 소발구와 손발구의 리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다양한 물품을 운반하도록 하며 단거리 운반은 손달구지에 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람이 이고 지는 현상을 완전히 근절 하여야 한다.

—탈곡 작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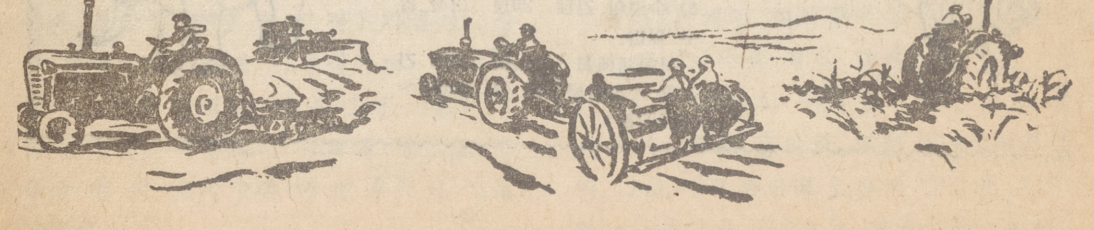
탈곡 작업의 기계화에서는 도리깨에 의한 탈곡을 결정적으로 없애며 힘이 많이 드는 족답 탈곡기에 의한 작업의 비중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동력 탈곡기 그 중에서도 벼, 옥수수, 콩 등 각종 알곡 작물의 탈곡 및 북데기 처리까지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그 생산 능률이 높은 만능 종합 탈곡기에 의한 탈곡 작업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전기 동력을 잘 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뜨락또르의 이동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몇가지 작물과 공정들에 대한 기계화 문제를 간단히 고찰하였다.

그러면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들 앞에 제기되는 과업은 무엇인가?

청년들은 우선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는 뜨락또르를 잘 리용하는가 못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즉 기경, 파종, 제초, 추수, 양수, 탈곡, 운반, 사료 분쇄 등 각종 작업에 뜨락또르를 효과있게 리용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청년들은 모든 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기술 수준을 높이고 중소 기계들에 대한 보다 훌륭한 창의 고안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여야 한다.

농기계, 련결 농기계 및 그의 부속품 생산에 종사하는 젊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농산 기술을 잘 알고 농학 기술적 요구에 적응하며 협동 농민들의 기호에 맞는 각종 농기계와 련결 농기계들을 질적으로 제때에 생산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청년들은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의 초병답게 자기의 정력과 창조적열성을 다 발휘 하자!

토막지식

생물계에서…

△가장 빠른 것

륙지에서 가장 빠른 것은 표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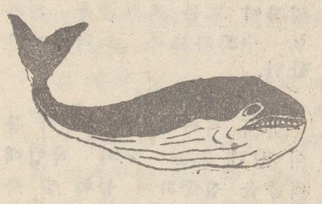
그의 초속은 30 메터이며 시속은 100 킬로메터다.

바다에서 가장 빠른 것은 곱등어이다. 그의 초속은 15～18메터이고 시속은 약 50～60 킬로메터이다.

공중에서는 환화봉(丸花蜂=벌레의 일종)이 제일 빠르다. 초속은 3,000 메터이며 시속은 1,000 킬로메터나 된다. 이 작으마한 벌레가 날때에는 마치 번개치듯 한다. 그 속도는 음파의 속도보다 약 8 배 가량 더 빠르다.

△가장 수명이 긴 것

수명이 가장 긴 동물은 고래



와 거북이인데 약 200～300 년간 살수 있다.

날 짐승 중에서는 새매가 가장 수명이 긴데 20년 이상 살 수 있다.

식물계에서 수명이 제일 긴 것은 소철나무이다.(12,000년～15,000년)



△가장 높이 나는 것

날 짐승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날아 오르는 것은 매이다. 매는 높은 산 측면의 상승 기류의 힘을 받아 고도 7,000 메터까지 날아 오른다.

△ 가장 힘이 센 것

코끼리와 물소는 여러톤의 물을 끌 수 있다. 그러나 그만 못지 않게 힘센 장수는 작으마한 곤충인 《돌뜰이》이다. 그는 자체 체중의 500 배나 되는 물체를 끌 수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이것은 극도로 부패 타락한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생활 양식이다. 가장 기생적이며 퇴폐적인 이 생활 양식은 피 비린내 나는 살륙과 전쟁, 략탈로서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 진 미 제국주의 기반 우에서 형성되였다.

《미국식 생활 양식》의 반동적 본질

《미국식 생활 양식》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우선 그것이 극단의 개인 리기적인 황금 만능의 생활 양식이라는데 있다.

돈—이것은 양키들의 《리상》이며 돈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못가진 수천만 근로 인민들은 굴욕과 학대 빈궁과 기아를 면하지 못한다. 아무리 높은 벼슬, 아무리 큰 저작도 바로 이 돈으로 좌우되고 있으며 시인의 정서도 과학자의 지식도, 지어 인간의 량심과 애정도 돈에 팔리고 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심지어 대학 졸업 론문, 학위 론문까지 대신 써 주고 돈을 받는 기관까지 있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돈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며 범죄도 서슴없이 감행 한다.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승냥이다》, 《넘어진 자는 밀어 치우라》라는 약육 강식의 승냥이 법칙은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생활 신조로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바로 독점 자본가들의 돈에 대한 탐욕으로 수 많은 돈 없는 근로자들이 피를 흘려야 하고 목숨을 바쳐야 하며 바로 돈과 재물을 위하여 혈육지간에도 류혈 참극이 일어나며 온갖 사기, 횡령, 협박이 횡행한다.

극단의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 만능의 《미국식 생활 양식》은 돈을 위한 범죄, 개인의 리익을 위해 서로 물어 뜯는 모든 흉악한 범죄를 《정의로운 미거》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그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하고 있다.

다음으로 극도의 부화 방탕과 패륜, 패덕은 《미국식 생활 양식》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대내적으로 자기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고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략탈하여 축적한 재부로 비대해진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더욱더 부화 방탕하며 변태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자들은 근로자들의 피땀으로 긁어 모은 돈을 부화 타락된 개인 향락에 탕진하고 있다. 미국 8대 재벌의 하나인 듀퐁은 화려한 주택과 24 개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는 미국 전체 학교 건축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500만 딸라나 된다. 그는 자기 양딸을 《사교계》에 진출시키기 위하여 100 만 딸라를 지출했다.

거리에 수 백만의 실업자가 일'자리와 먹을 것이 없어 헤매이며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눈알까지 팔겠다고 광고를 내는 처참한 생활이 놓여져 있는 반면에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개는 왕에 못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 석유 독점가의 처는 자기의 개를 위하여 불란서 왕 루이 15세가 사용하던 침대와 같은 형의 침대를 《개를 위한 상점》에 주문했다. 이 상점에는 개를 위한 옷, 신발, 침대, 장난감 심지어 무용복까지 마련되여 있다.

다음으로 《미국식 생활 양식》의 중요한 특징은 중세기적 야수성과 잔인성에서 표현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의 중요 특징인 야수성과 잔인성은 력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양키의 선조들은 일찌기 1492년 콜롬브스의 미국 대륙 발견과 함께 발을 들여 놓은 그 때로부터 령토 확장과 돈'벌이를 위하여 원주민들을 살육함에 있어서 그 야만성과 잔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놓았다.

1814년 미국 정부는 대중적 규모로 원주민을 살육하기 위하여 인디안의 머리 가죽에 현상을 실시할 것을 정식 법령으로까지 공포하였다. 이에 의하면 인디안의 머리 가죽 한장에 50 딸라씩 상금을 지불하기로 되여 있다. 미국 자본가들의 학살 만행으로 북미주에만도 38만을 헤아리던 70 여 개의 인디안 종족들은 거이 멸족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 양키들의 후예들은 오늘 더욱더 야수화되고 그 잔인성은 몇백배 증가되였다.

오늘 미국에서 살인, 테로, 린치의 온갖 범죄는 합법적으로 백주에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자기의 황금 만능의 생활을 유지 공고화 하기 위하여 국가적 폭력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에 범람한 폭력배들까지 적극 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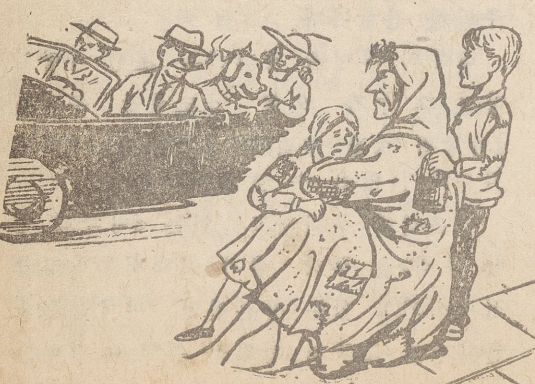
지금 미국에는 돈을 받고 사람 죽이는 것을 전문업으로 하는 《살인 회사》가 있으며 합법적인 깽 단체들이 욱실거리고 있다. 례하면 《쿠 클라스 클랜》을 비롯한 《은샤즈단》, 《흑병단》과 같은 야수적 파쑈테로 단체들과 깡패들이 미 독점 자본가들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로동 운동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인 것의 탄압과 테로를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테로단의 린치, 흑인에 대한 집단적 학살이 매일 같이 속출되고 있으며 매 시간에 1 건의 살인 사건, 9분간에 1 건의 강도 사건, 2분간에 1 건의 자동차 절도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야수화된 미제 식인종들의 본성의 발로이다.

남조선에서 세살난 어린이를 도적으로 몰아 쏘아 죽이고 젊은 녀성을 릉욕하고 백주에 강도질하며 살인 방화하는 미군의 만행은 바로 《미국식 생활 양식》에 의하여 《교양》된 놈들의 야수적 풍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은 《미국식 생활 양식》이야 말로 동서 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추악하고 파렴치한 식인종들의 말세기적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의 이와 같은 반동적 본질로하여 오늘 미제는 이것을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예속과 략탈을 위한 사상—도덕적 무기로, 침략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식 생활 양식》을 통하여 극단의 개인주의, 리기주의와 말세기적인 온갖 패륜, 패덕의 악랄한 독소를 부식시켜 그 나라 인민의 민족적 각성과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며 굴종과 허무주의를 고취하며 그들을 사상 도덕적으로 타락시킴으로써 자기의 지배와 략탈을 마음대로 하려는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미국식 생활 양식》은 남조선 청년들에게 어떠한 해독적 작용을 놀고 있는가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날로 장성 강화되는 계급 의식과 민족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침식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 사회에서는 극도로 부화 타락된 각종 말세기적인 패륜, 패덕 행위가 범람하고 있다.

남조선에 부식된 《미국식 생활 양식》은 청년 학생들의 민족적 감정과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비관과 염세, 무기력과 타락에로 내 몰고 있다.

허무와 색정, 굴종과 절망을 설교하는 추잡한 미국 영화, 도서, 쟈즈가 거리에 범람하여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좀 먹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까지도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다.

《라지오를 통하여, 또는 청소년 남녀들의 구음(口音)에 의해서 듣는 노래들은 거의 미국의 쟈즈나 그것의 모방물, 그렇지 않으면 저속한 류행가 따위로서 국민이 즐겨 제창할 만한 좋은 가요가 없다. 실로 대중 음악 가운데 쟈즈 음악이 아니면 서양이나 일본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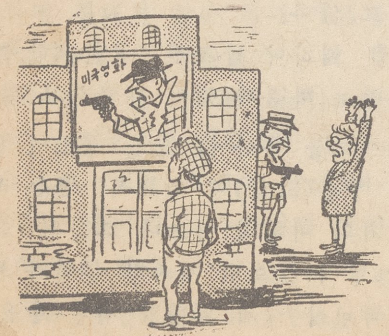
모방한 것이 압도적이니…흡사 한국은 문화적 식민지의 인상을 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이 추잡한 미국 영화와 쟈즈, 음탕한 춤에 매혹되여 타락의 길에 떨어지며 염세적인 미국 소설을 탐독하면 남어지 비관 자살하는 것과 같은 사실들이 허다히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식 생활 양식》의 독소는 청년들에게 숭미 사상을 고취하며 남조선 청년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말살하며 미국에 대한 굴종과 민족 허무주의를 설교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모르는 극단의 개인 리기주의를 주입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의 부식으로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

돈 때문에 혈육지간에 추악한 싸움이 버러지고 정숙하던 가정 녀성이 바람이 나서 가정 풍파가 일어나며 안해가 남편을, 아들이 아버지를 독살하며 당장 죽어가는 환자를 병원에서 축출하는 등



참아 눈 뜨고 볼 수 없는 온갖 패륜, 패덕, 범죄가 남조선 사회를 휩쓸고 있다.

괴상 망칙한 미국식 《류행》의 옷 차림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풍습을 파괴하고 있으며 세계에 으뜸가는 우리 말이 남조선에서는 더렵혀질대로 더렵혀지고 이제 와서는 몇천년을 걸쳐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 받은 이름까지 미국식으로 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에는 양키의 본을 따라 소위 깽단이라는 무리들이 도시마다에 횡행하면서 양키들과 함께 살인 략탈, 테로, 강간 등 흉악 무도한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이 깡패들은 인민들의 재산을 백주에 습격 략탈하며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운동을 탄압 박해하는 파쑈적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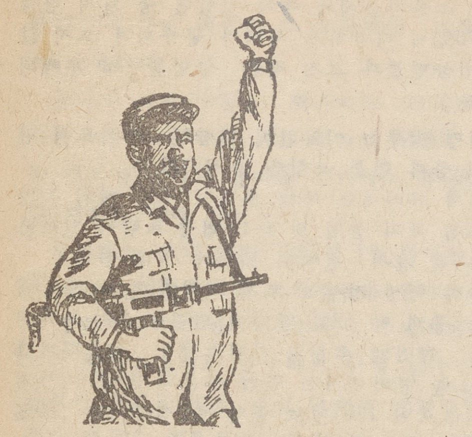
남조선의 한 학생은 《야수라는 이름의 사나이》라는 미국의 깽 영화를 보고 영화의 주인공처럼 부락민을 구타하고 두 눈알을 빼내는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학생들이 경기를 하다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패싸움을 벌리다 못해 서로 학교를 습격 파괴하는 일이 비일비재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식 생활 양식》의 추악한 산물이다.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조선 사람이라면 그 누가 오늘 남조선에 부식된 《미국식 생활 양식》의 후'과에 대하여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조선에 부식되고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를 전파시키고 있는 장본인인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남조선 사회를 철저히 민주화하여야 한다.

큐바 혁명의 영광스러운 길



민 영 철

일곱 자루의 보총으로부터

미제와 그의 주구 바티스타의 파쑈 테로 통치가 큐바의 온 강토를 뒤덮은 그 암담한 시기에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강력한 혁명 운동이 전개되였다.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큐바의 애국적 청년들은《죽을 지언정 굴욕적인 생은 원하지 않는다.》는 큐바의 민족적 영웅 호세 마르티의 혁명적 정신을 받들고 무장 투쟁으로써 매국적인 바티스타 독재를 타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은 호세 마르티 탄생 100주년이 되는 1953년 초에 《백주년 청년 운동》이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였다.

혁명가들은 비밀리에 무기를 사들이고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우선 하나의 혁명 근거지를 만들고 그에 의거하여 전국 각지의 각계 각층 인민들을 바티스타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시킬 방침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7월 26일 새벽에 애국자들은 반동적 정부군 한개 련대의 본부이며 바티스타 도당의 두번째로 큰 병영인 <몬카다> 를 공격하였다.

자기 멸망의 전주곡을 들은 바티스타는 소생하는 혁명의 싹을 없애려고 고용병들을 급파하였다.

력량상 현저한 차이로 <몬카다> 병영에대한 습격은 실패하였으며 8월 1일에는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일부 지도자들이 놈들에게 체포되였다.

적들의 법정에서도 혁명가들은 조금도 굴합이 없이 투쟁을 계속하였다.

10월 16일 개인 병원의 자그마한 방에서 비밀 공판이 벌어졌을 때 피델 카스트로는 자기의 변호문에서 바티스타 독재 정권의 야수적 만행을 준렬하게 규탄하였으며 바티스타에게 그가 범한 모든 죄행을 법률에 비추어 100년 징역을 언도할 것을 소리 높이 웨쳤다. 그는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혁명 강령을 제기하였으며 이 강령을 실현할 견결한 의지와 큐바 혁명에 대한 굳은 신념을 표명하였다. 그는 《나를 판결하라! 문제 없다. 력사는 나를 무죄로 선포할 것이다.!》 라고 소리 높이 웨쳤다.

인민들과 투사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55년 5월 감옥에서 석방된 카스트로를 비롯한 혁명 투사들은 곧 멕시코에 망명하여 반바티스타 무장 투쟁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 재 혁명 조직을 《7, 26 운동》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들은 무기와 탄약을 마련하였고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 11월 25일 피델 카스트로의 인솔하에 82명의 애국자들은 범선 《그란마》호를 타고 뚝스빤항을 떠나 멕시코만의 사나운 파도를 넘어 큐바에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란마》호는 상륙 지점에서 적에게 발견되였다.

혁명 투사들은 달려드는 적들과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워낙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맞선 조건하에서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고 나머지는 분산 되였다.

적들의 포위를 벗어나 한곳에 모였을 때에

는 12명과 7정의 보총이 남았을 뿐이였다. 그러나 12명의 용사들은 락심 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델 카스트로 동지의 령도밑에 일곱 자루의 보총을 메고 씨에라 마에스트라산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씨에라 마에스트라산에서 큐바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 혁명 투사들은 혁명의 날창을 벼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게 대중을 발동하고 농민들을 조직하며 혁명 근거지를 창설할 투쟁 방침을 채택하였다.

민활한 봉기군 전사들은 항상 신출귀몰의 비상한 활동으로 적을 공격하였으며 매 전투마다에서 승리를 거듭하였다. 봉기군들은 도처에서 인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봉기군들의 영향하에 전국 각지 인민들의 혁명 투쟁도 더욱 앙양되였다.

봉기군은 많은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고 그를 공고히 하면서 인민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많은 지방에 농민 협회를 조직하고 농민들을 도와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지주들의 수중에서 몰수한 식량과 가축을 농민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

봉기군의 력량은 날로 강화되여 1958년 말에 가서는 1만 2천 명으로 발전하였다.

혁명 력량의 급속한 장성에 질겁한 바티스타 독재 정권은 1958년 5월 대병력을 동원하여 마에스트라산 지역과 기타 전선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단번에 봉기군을 소탕하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결정적인 시각에 봉기군들은 피델 카스트로의 령도 밑에 2 개월여에 걸치는 방어전을 전개한 끝에 드디여 반공격에로 넘어갔다.

12월 22일에 봉기군은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군대는 봉기군의 소리만 들어도 혼비 백산하였다.

1958년 말에 봉기군은 수도 하바나에 입성하였다.

큐바 인민과 투사들의 간고한 무장 투쟁에 의하여 독재 정권은 전복되였다.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인민이 나라의 정권을 틀어쥔 공화국이 수립되였다.

700만이 무장한 큐바 혁명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바티스타 독재를 전복하고 주권을 자기 수중에 튼튼히 틀어쥔 큐바 인민은 걸출한 애국자이며 민족적 영웅이며 위대한 수령인 피델 카스트로를 수반으로하는 혁명 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미제의 악랄한 침략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혁명을 전진시켰다.

큐바 혁명 정부는 1955년에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 독점체들과 국내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속해 있었던 총 경지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토지가 몰수되여 토지 없는 빈농민들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였다.

혁명 정부는 이와함께 대담한 조치로서 인민 농장과 협동 조합을 조직하였다.

현재 큐바에는 국영 경리인 수백 개의 농장과 2천 개의 농업 및 축산 협동 조합이 있는바 이는 전 경지 면적의 42%에 해당 한다.

큐바 혁명 정부는 토지 개혁과 함께 큐바에 있는 총액 약 12억 딸라에 달하는 800 여개의 미국 독점체 소유의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다. 오늘 큐바에서는 공업 부문의 90%가 사회화되였으며 1961년도 공업 총 생산액의 80%가 국영 공업에서 생산되였다.

인민의 소유로된 공장 기업소들은 큐바의 자립적 민족 경제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 지난 날 몇 개의 제탕 공장과 보잘것 없는 몇 개의 방직 공장 밖에 없었던 큐바는 지금 강철 공업이 현저히 발전되여 혁명전에 비하여 10배 이상에 달하는 강철을 생산하고 있으며 석유 공업, 니켈 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기타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다.

혁명 정부는 《1961년을 교육의해》로 선포하고 문맹 퇴치를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혁명전에 있었던 260만명의 문맹자를 완전히 퇴치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문맹자가 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혁명 정부는 1962년부터 큐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 경제 발전 4 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4 개년 계획이 수행되면 큐바는 락후한 농업—공업 국가로부터 현대적 공업을 가진 발전된 나라로 전변될 것이며 인구 1 인 당 공업 제품 생산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 1위를 찾이하게 될 것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은 큐바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격하게 향상 시켰다. 혁명 정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집없는 근로자들은 주택을 받았고 직업없는 사람은 일터를 받았다. 농촌에서만도 1961년부터 1962년까지에 1만 9천 세대의 주택이 건설되였다. 과거 50만을 헤아리던 실업자는 완전히 없어졌다.

미국으로부터 불과 150 키로 떨어진 큐바 땅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미제 침략자들은 극도로 당황했으며 발광했다.

미제는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책동을 다해가면서 큐바 혁명을 그 요람기에 교살하려고 날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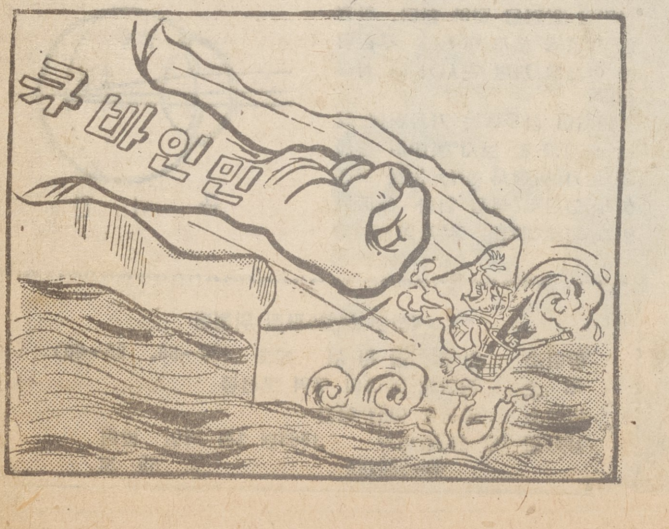
큐바의 사탕 수입을 취소하는 조치로부터 시작하여 경제 봉쇄, 외교 관계의 단절을 포함한 정치적 압력과 큐바를 반대하는 부단한 도발 행위를 감행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1년 4월 혁명적 큐바를 단숨에 정복하려고 고용병들을 플라야 히론에 상륙시켰다가 단 72 시간만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침략자들은 여기서 교훈을 찾을 대신 더욱더 발광적인 반큐바 책동을 집요하게 계속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국제법의 초보적인 규범마저 완전히 유린하고 큐바를 반대하는 전면적 무력 봉쇄와 전대미문의 파렴치한 도발 행동을 감행하여 나섰다.

그러나 미제의 어떠한 강도적 침략 책동도 전체가 손에 무장을 들고 혁명 수호에 떨쳐나선 큐바 인민을 놀래울 수는 없었다.

큐바 인민들은 원수들의 강도적 침략에 대처하여 자기의 탁월한 수령 카스트로 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손에 무기를 들고 주권의 존엄과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여 나섰다.

《강대한 군사력이 우리를 소멸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코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전에 감히 우리 조국 큐바 땅을 침범하는 해적들에게서 높은 피값을 받아 내고야 말것이다. 우리는 희생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발은 승리적으로 휘날릴 것이다.》 이렇게 피델 카스트로는 영웅적 큐바 인민의 이름으로 침략자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전세계 인민의 강력한 지지 성원하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한 사람같이 일떠선 큐바 인민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공개적인 무력 침공 기도는 좌절되였다.

큐바 혁명의 승리는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이 철저한 반제 투쟁의 기치하에서만 민주주의적 변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토대하여 확고하게 사회주의 혁명의 길에 들어서는 때에야만 진정한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어떤 역경에서도 인민들이 굳게 뭉쳐 손에 무기를 들고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운다면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혁명적 큐바 인민은 오늘 자기의 탁월한 수령 피델 카스트로를 수반으로하는 혁명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면서 사회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고 있다.

미제가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결코 큐바 혁명을 말살할 수 없으며 그의 전진을 멈출 수는 없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영웅적 큐바 인민이 원쑤들과의 준엄한 투쟁 속에서 달성한 혁명 승리와 모든 업적들을 자기의 업적과 같이 기뻐하고 있으며 항상 싸우는 큐바 인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다.

위생지식

눈의 위생

박 실 종

사람들의 생활에서 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눈을 잘 보호하지 못하여 시력이 약해지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 물체를 애써 보려는데로 부터 머리가 아파나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시력이 약한 탓으로하여 오는 지장은 이것만이 아니다. 특히 생기발랄한 청년들의 뇌수 활동에도 지장을 주게되며 코와 귀의 신경 계통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기에 예로부터 사람들은 《몸 천량에 눈 팔백량》이라고 했다.

이처럼 눈을 잘 보호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눈의 발육 상태가 나쁘거나 잘 보호하지 못한 탓으로하여 근시, 원시, 란시 등이 생기게 된다.

눈은 마치 사진기 원리와 같아서 정상적인 시력은 (정시) 눈으로 들어오는 (사진기로 말하면 렌즈로 들어오는) 광선이 망막(사진기에서는 건판)우에 정확히 초점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근시의 경우는 초점을 망막 앞에서 맺게되며 반대로 망막의 뒤에서 초점이 맺어질 때 원시가 된다. (그림 참조)

그 중에서도 근시는 독서열이 높은 청년기에 제일 많이 생긴다.

근시는 먼 곳에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며 눈이 앞으로 튀여 나오고 두통이 생긴다.

근시는 어렸을 때부터 밝지 못한 곳에서 오래 책을 보거나 책상과 의자의 거리, 앉는 자세 등이 불합리할 때 생길 수 있다. 또한 근시는 전등 촉수가 너무 높거나 해'빛이 내려 쬐는 곳에서 일상적으로 책을 읽거나 영양 상태가 나쁠 때에도 생길 수 있다.

근시를 예방하려면 청년기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정상적인 시력을 보장하려면 우선 어렸을 때부터 몸을 단련하여야 하며 방안을 밝게 하고 체격에 알맞게 책상과 의자의 간격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을 읽어 버릇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에는 눈에서 책까지의 거리가 30~40 센치메터 정도가 좋으며 눈과 보려는 물체 간의 각도는 직각인 경우가 시력을 보호하는데 가장 좋다.

만일 눈에서부터 보려는 물체가 지나치게 가까울 때에는 눈이 몹시 긴장되여 머리가 아파나는데 이런 생활을 오래 계속하는 경우에는 근시에 걸릴 수 있다.

근시가 생긴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안경을 껴야 한다. 교정한 안경을 쓰지 않거나 부정확한 안경을 끼면 근시가 더 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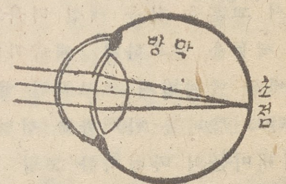
원시인 경우에는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하며 물체를 보기 위해서 항상 눈을 조절하게 되므로 책을 읽을 때에는 인차 피로해지며 글'자의 륜곽이 흐려지며 머리가 무겁고 때로는 눈에 피가 지기도 한다.

원시도 알맞는 안경을 끼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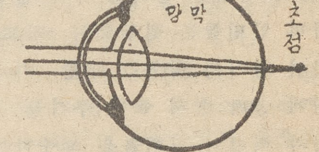
란시는 물체가 흐려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물체에서 나온 빛이 어떤 것은 망막 앞에 어떤 것은 그 뒤에 또는 망막 우에 제각기 비쳐주게 되므로 물체가 정확히 보이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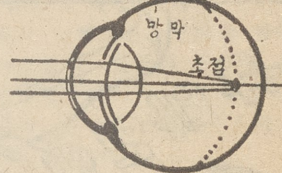
그러므로 란시 때에 안경을 끼지 않으면 책을 보기 어렵게 된다.



정 시 안



원 시 안



근 시 안

《청년 생활》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전화 (38—58, 83—85)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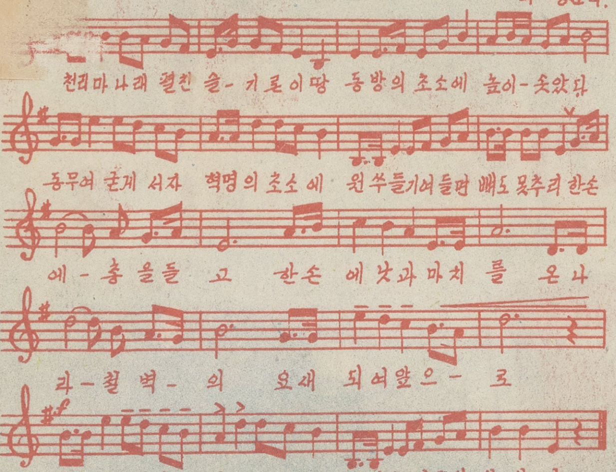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1963년 1월 15일 인쇄 1963년 1월 20일 발행

7—330112 값 35 전

한손에 총을들고 한손에 낫과마치를

리 호원 시.
박 송준 곡.



2. 영웅의 이땅 우에 꽃피는 락원
슬기찬 선렬의 붉은피 스몄다
동무여 잊지말자 철천의 원쑤[illegible]
원쑤들 기여들면 빼도 못추리
(후렴)

